

##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한국 청년들이 끌려가 일본을 위해 희생되고,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한국 소녀들이 위안부(성노예)로 강제 연행되어 일본을 위해 굴욕 · 희생당하다. 반성과 사과가 없는 범죄(침략전쟁)는 되풀이 된다!  
일본은 왜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

글 \_ 이흥림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① 오키나와에 세라믹 기술을 전한 위대한 대한민국 세라미스트, 장헌공(張獻功)!
- ② 위대한 평화주의자 대한민국 세라미스트가 전파한 세라믹 한류, 오키나와까지 가다!
- ③ 천황주의자 아베의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신제국주의 · 신군국주의 야망: 사과와 반성 없는 범죄(침략전쟁)는 되풀이 된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본!
- ④ 오늘날 극단주의자들이 테러에 사용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법보다 더한 가미카제(자살특공대)와 ‘옥쇄(강제자결) 수법은 일본이 침략전쟁에 먼저 사용!
- ⑤ 일본의 침략주의의 근원은 국가신도(國家神道) · 황국사관(皇國史觀) ·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참배: 일본의 음모(암호)는 ‘타 민족 멸종’ 이고, ‘침략주의’ 는 ‘일본의 종교’ 인가?
- ⑥ 일본의 암호(음모)를 해독하라!
- ⑦ 평화주의 대한민국과 침략주의 일본의 미래는? 한국 · 오키나와 세라미스트들의 역할은?

### 1. 머리말: 오키나와(류큐왕국)

오키나와현(沖繩縣)은 일본 류슈에서 대만까지 이어지는 1,300km 해상에 활처럼 연결된 160여 개에 가까운 섬들로 이루어진 류큐 열도를 가리킨다 (Fig. 1). 크고 작은 160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섬을 포함해 유인도는 48개가 있다. 일본 유일의 아열대 기후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연평균 기온이 20°C가 넘어 눈도 거의 내리지 않으며, 크게 남부 · 중부 · 북부 지역으로 나뉜다.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왕국(琉球王國)이란 독립국이었

다. 류큐왕국은 일본, 한국(조선), 중국과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무역을 통해 번성했으며,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1609년 일본 가고시마의 사쯔마(薩摩)국이 류큐왕국을 침공하여 정복했다. 이후 류큐왕국은 사쯔마국에게도 조공을 바치게 되자 중국과 일본 토쿠가와 막부와의 관계에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사쯔마의 지배력이 계속 미치게 된다. 메이지유신(1868년) 후 1872년, 일본은 류큐왕국을 식민지로 병합하고, 1879년 오키나와현으로 편입한다.

주민들은 본토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키가 작고 피부가 검다. 언어는 원래 고유의 언어인 류큐어를 사용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Fig. 1. 대한민국중국러시아일본-오키나와 지도<sup>1)</sup>

했지만 1940년대부터는 사용이 금지됐다. 일제가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편 것과 같은 이유인 일왕의 국민으로 만든다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에 따라 일본어와 일본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며, 작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

### <오키나와의 슬픈 아리랑고개>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미군과 일본군이 오키나와에서 격돌했다. 전쟁 83일 만에 오키나와 본섬에서만 일본군 9만8000명, 미군 1만4000명, 오키나와 주민 9만8000명, 위안부 460~660명(추정)과 군부(軍夫) 등 한국(조선)인 1만 명이 죽었다.

군부(軍夫)는 일본군대를 위한 막노동꾼이다. 1944년 7월 9일 경북 농촌에서 대구로 끌려간 뒤 부산을 거쳐 시모노세키(下關)에 부려졌다. 이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배를 타고 출렁이는 바다를 건너 외딴섬에 팽개쳐졌다... 일본 최서단 오키나와(沖繩) 현에 슬픈 사연의 아리랑 고개가 생겨났다.

오키나와의 현청 소재지 나하(那覇) 시에서 고속선으

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아카지마, 아카(阿嘉) 섬이 있다. 아카지마에는 300여명이 살고 있다. 아리랑 고개 표지는 없다. 하지만 아무나 붙들고 아리랑 고개가 어디냐고 물으면, 다들 “아리랑 꼬개”라며 가리킬 만큼 아카지마에서 아리랑 고개는 보통명사화 했다. “밤마다 한국여인들이 (위안소에서 숙소로 돌아올 때) 구슬프게 아리랑을 부르며 이 고개를 넘어왔다”고 똑똑히 증언한다. 오키나와인들에게 조선인 위안부의 이미지는 그렇게 슬픈 아리랑으로 남았다.<sup>2)</sup>

## 2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조선)인 세라미스트들이 다시 오키나와로 가서 세라믹 기술을 전하다! 그곳에 참혹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한국(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희생당하다!

- 오키나와(류큐)에 귀화해 세라믹 한류를 전한 한국(조선)인 세라미스트(도공) 장헌공(張獻功) -

오키나와에서 자기(磁器) 역사가 시작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다. 그리고 그 역사는 조선의 세라미스트(도공)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가서 아리타(有田)에서 도조(陶祖)가 된 이삼평(李參平)에 해당하는 인물인 장일륙(張一六)[후에 장헌공(張獻功)]이라고 불림)에 의해 오키나와 자기가 시작되었다.

그는 왜장 시마즈(島津)에 의하여 류큐 남단 가고시마(鹿兒島)의 사쯔마(薩摩)로 잡혀갔다가 류큐왕국 상풍왕(尚豊王)의 요청으로 오키나와에 가게 된다. 시마즈는 가고시마의 영주로서, 도공 심당길(沈當吉)[그의 12대손부터 심수관(沈壽官)이라 함, 현재 14대손을 잡아간 인물이다. 임진왜란 이후 시마즈는 축적된 군사력을 동원하여 1609년 류큐왕조를 점령하여 복속시켰다. 류큐의 상

<sup>1)</sup>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dhosuk&logNo=10177174334>(2015.2.6. 접속)

<sup>2)</sup> 신동립, <경북문경·일본 오키나와, 슬픈 평화... '아리랑' >, 동아일보, 2015.2.15.



**Fig. 2.** 오키나와 요미탄 도자기 마을 조선식 오름가마<sup>3)</sup>  
 풍왕자(尙豊王子)는 이때 일본으로 잡혀갔다가 1616년  
 에 고국으로 돌아와 왕위를 이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안 신기술 도자기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상풍왕자는 귀국에 즈음하여 시마즈에게 조선 도공의 파견을 요청한다. 장헌공(張獻功)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기록된 장일륙이 류큐에 파견될 때 그는 안일관(安一官), 안삼관(安三官) 등과 동행하였다. 안일관과 안삼관 두 사람은 곧 사쓰마로 돌아갔으나 장헌공(장일륙)만은 돌아가지 않고 마우시(眞牛)라는 이름의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오키나와에 그대로 눌러앉게 되었다.

장헌공이 개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와쿠다가마(湧田窯)의 초기 도자기는 소박하기는 하지만 철화분청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Fig. 2).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 받은 오키나와의 도자기에서는 그 후 중국과 일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선 분청의 맥을 느낄 수 있다. Fig. 3의 오키나와 도자기 <야치문>에서 한국인 세라미스트 장헌공과 그 후손의 손길과 평화주의 정신을 느낄 수 있으며,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된 한국(조선)인 영령들의 슬픈 사연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처음 한국(조선)의 세라미스트(도공)들이 류큐에 와서



**Fig. 3.** 오키나와 도자기 <야치문>. 소박하고 투박하면서도 약동감 있는 문양이 독특한 도자기의 멋이며, 야치문을 통해 남국 오키나와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sup>4)</sup>

도자기 제조 기술을 전하고 몇 년 동안 기술 지도를 한 후에 사쓰마로 돌아갈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헌공은 궁벽하고 불편한 오키나와 생활을 감수하면서 섬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그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불편하지만 그는 자신을 원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사랑과, 그를 필요로 하는 바람을 종내 저버리지 못하는 한국인 특유의 정(情)과 의리(義理)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의 어느 고을에서 뜻하지 않은 전란을 맞고 왜장에게 포로가 되어 사쓰마로 끌려갔다가 다시 류큐왕국(오키나와)으로 보내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위대한 평화주의 대한민국 세라미스트로서의 사명인 세라믹 한류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결국 오키나와에 뼈를 묻게 된다.<sup>5)</sup> 우리는 장헌공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그의 후손들과 그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오키나와인들의 평화를 위해 교류하면서, 장헌공 후손들이 오키나와인들과 함께 태평양전쟁 동안 겪었던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전쟁이 없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sup>3)</sup> 출처: <http://blog.daum.net/brunhilde/7991931>(2015.2.6. 접속).  
<sup>4)</sup> 출처: <http://blog.naver.com/okinawakanko/60146415652>(2015.2.10. 접속)  
<sup>5)</sup> 윤용혁, '오키나와 자기 이야기', e-금강뉴스, 2011.8.17.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 장현공의 후손이 약 900명 정도 살고 있으며, 나하에는 17세기부터 지금까지 도기를 구워온 가마가 있다. 오키나와에서 제작된 예술품과 도자기·칠기 등의 공예품은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다. 명소로는 만좌해변, 오쿠마비치 등의 해수욕장, 히메유리공원, 동남식물낙원 등이 있다. 남부에는 태평양전쟁(1941~45) 때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들의 위령탑이 있다.<sup>6)</sup>

**3. 태평양전쟁 때 오키나와를 비롯한 태평양 섬에서의 전투: 옥쇄작전**

- 오랜 기간 전쟁을 해온 일본은 왜 또다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나? 먼 나라에서 장기간 전쟁을 미리 계획한 일본은 군위안부제도의 필요를 느끼고 시행한다! -

태평양(대동아)전쟁은 1941~1945년까지 일본이 필리핀, 동남아시아와 미얀마 등의 지역과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침략하여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오랫동안 침략전쟁·식민통치를 계속하던 일본은 유럽의 상황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 있는 유럽 식민지를 강탈하기로 결심한다. 네덜란드령 동인도(지금의 인도네시아)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 반도에는 일본의 산업 경제에 필요한 원료(주석·고무·석유)가 있었다. 일본이 이 지역을 빼앗아 일본제국에 병합하여 경제자립을 이룩함으로써, 태평양의 지배자가 되고자 한 것이다. 1940년 말까지 일본 전략가들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도 일본이 상대할 적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1941년이 되자, 영국·네덜란드·미국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침

략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마침내 일본 천황과 총리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884~1948)는 태평양(대동아)전쟁을 계획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주된 상대국으로 생각한 미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1941년 12월 7~8일, 하와이 진주만과 필리핀에 있는 미국의 군사시설을 기습·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 의해 강제징병·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로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지구의 끝자락인 먼 태평양의 섬 어디든지 강제로 끌려갔다. 일본은 먼 나라에서 장기간 전투를 위해 위안부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미리 기획하여 실행했던 것이다.

<일본천황의 태평양(대동아)전쟁 선전포고 조서(詔書)와 일본의 전략>

일본 천황은 먼저 미국을 기습적으로 공습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선전포고 조서를 발표하였다: “천우(天佑, 하늘의 도움)를 보유하고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신 대일본제국 천황은 충성 용맹한 우리 국민에게 명확히 고한다. 짐은 여기에 미국 및 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 짐의 육해군 장병은 전력을 다해서 교전에 임하고, 짐의 여러 관료들은 직무에 정진해 봉공하며, 짐의 국민은 각자 그 본분을 다해 억조 일심으로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전승의 목적을 달성함에 오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 어명어새(御名御璽) 1941년 12월 8일 각 대신부서.”<sup>7)</sup> 이 내용을 보면, 국민 위에 신격으로 군림하는 일본 천황이 그의 절대 권위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같은 책에 “독일은... 일본에게 배워서 그 정신적 요소를 함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한데... 미·영의 경우는 아직도 각성하는 바가 없다”<sup>8)</sup>, “독일의 히틀러는

<sup>6)</sup>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305&cid=40942&categoryId=33293>.  
<sup>7)</sup>인문사 편집부 엮음, 신승모·오탈영 옮김, “아시아-태평양전쟁과 조선”, 4, (서울: 제이앤씨, 2011).  
<sup>8)</sup>ibid., 14, 오쿠보 고이치(大久保弘一) 일본군 육군 중좌, ‘01. 대동아전쟁에서의 황군의 사명과 본령(1942.8.10)’.

‘유럽 천 년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대사업이 지금 신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황국의 입장도 이와 전혀 다를 바 없고, 이 신의 뜻을 삼가 받드는 양국이 동서에서 서로 호응제휴해서 전 세계 신질서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 사업 실현의 서막이 지금 시작된 것이다.”<sup>9)</sup>고 기록한 것으로부터, 독일이 오히려 일본에게서 잔인한 침략 전략·전술을 배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미·영에 대항하여 일본이 독일과 제휴하여 침략전쟁을 일으켜 세계를 파멸로 내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은 본래 해양국이며 일본국민은 해양성이 매우 풍부한 국민이다. 그것은 일본의 신화에도 여러 가지 바다에 관한 신화로써 나타나 있다… 해양국민은 감행하는 기개가 매우 높고, 적극성이 풍부하다… 본래 해양성은 일본인의 피 속을 흐르고 있고 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나라가 개국하자 홀연히 해양 정신은 깨어났고 강둑이 무너져 내리는 기세로 일본인은 바다를 향해 뻗어간 것이다… 1953년 페리(Perry) 제독의 내항에 자극을 받아, 그로부터 7년 만에 막부의 군함 간린마루(咸任丸)라는 작은 배로 일본인만의 힘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 이것이 일본 근대 해군의 시초다… 일본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획득하게 된 계기는 1894년 9월 17일 청일전쟁 중기 일본해군연합함대와 청나라북양함대사이에 벌어진 황해해전(黃海海戰)으로 압록강해전(Battle of the Yalu River)으로도 불리는 해전이다. 근대적인 장갑함이 실전에 투입된 최초의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이 해전의 결과, 청나라 해군은 큰 손실을 입고 제해권을 상실하여 무력화 되었다. 일본은 일본 근해의 동아시아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1904~5년의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대파하여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의 야망을 좌절시켰다… 힘이라는 것은

$F=MV$ 로서 M은 군함, V는 정신력, 기술, 병기, 필승의 신념(일본의 대화혼)을 종합한 것이다.”<sup>10)</sup>고 적고 있어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원과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점령 야욕을 키우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이다. 또 “대동아공영권의 서쪽은 그 권역에 미안파뿐 아니라 인도까지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다.<sup>11)</sup> 이와 같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거쳐 아베 총리로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침략 근성의 저변에는 엄청난 과대망상의 광기(狂氣)인 사무라이 정신, 즉 대화혼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야욕을 키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1년 12월 7~8일, 미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대동아)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를 점령하면서 이 지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약 2,500만 명의 인명을 희생시킨다. Fig. 4는 일본이 태평양전쟁으로 세력을 넓힌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1942년 6월 하와이 제도 북서쪽의 섬 미드웨이(Midway) 해전에서 미국에게 크게 패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고부터 2년이 흐른 1944년, 전선은 태평양의 먼 남쪽의 바다로부터 일본의 심장부를 향해 점점 북상하고 있었다.**

일본군에게 밀리던 연합군(미군 등 서양세력)은 1942년 8월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에서 반격을 시작한 지 2년이 못되어 솔로몬 제도를 모두 점령하고 길버트 제도와 마셜 제도, 그리고 뉴기니 섬의 파푸아 지역을 확보했다. 거침없이 진격해가던 연합군이 다음으로 겨누고 있었던 지역은 중부 태평양의 마리아나 제도였다. 그 마리아나 군도에 사이판이 있다. 일본의 전형적인 자살공격(옥쇄) 작전으로 유명한 사이판 전투에 대해 김창원 전사

<sup>9)</sup> Ibid., 23.  
<sup>10)</sup> Ibid., 32-38, 구로키 고이치(黒木剛一) 일본군 해군 대좌, '02. 태평양과 우리 해군'.  
<sup>11)</sup> Ibid., 60, 오쿠다이라 다케히코(옥평무언) 경성제국대학 교수, 동경제국대학 정치과 출신(1924), '04. 대동아전쟁의 큰 목적과 그 성격'.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세력 확장



Fig. 4. 태평양(대동아)전쟁 당시 일본이 세력을 넓힌 범위<sup>12)</sup>.

연구가의 글을 일부 발췌하여 아래에 소개한다.<sup>13)</sup>

3.1 사이판 전투: 자살돌격(옥쇄) 전투

마리아나 제도에서 괌 다음으로 큰 섬인 사이판은 16세기에 스페인이 발견하여 식민통치를 하다가 1899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스페인이 독일에게 매도하였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위임 통치를 하게 된 복잡한 사연을 가진 섬이다. 사이판이 일본 통치령이 된 후 약 2만 5천 명의 일본인이 사이판으로 이주했다. 대부분 오키나와나 조선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민간인 중 5천 명은 사이판 전투 전에 일본으로 귀환하지만 나머지 2만 명은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

일본은 사이판을 빼앗기면 국토의 심장부가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되는 셈이라 미군 격퇴에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다. 1943년 9월 일본은 사이판 일대를 절대국 방권의 핵심 거점으로 삼았다. 일본 육군은 사이토 중장이 지휘하는 제43 사단과 9전차 연대를 사이판 수비 병력으로 파견하였으며 육군 약 2만 8천 명, 해군의 육전대와 병참 부대 1만 5천 명, 합계 4만 3천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1944년 6월 11일 미 해군 함재기 1,100기가 사이판을 기습해 맹렬한 폭격을 했다. 이어서 6월 13일, 해안에 접근한 함대의 포격이 시작되었다. 미군이 상륙하고 3주가 지난 7월 초, 일본군은 더 이상 버틸 여력도 후퇴할 후방도 없었다. 이제 사이토 중장이 지휘하는 43사단에는 잔존 병력 4천 명, 타 부대 소속 병력 2천 명 정도가 생존해 있었으며 온전하게 움직이는 전차는 3량 정도, 야포는 전부 파손된 상태에서 식량이나 의약품은 물론 마실 물도 없는 상태였다.

사이토는 최후의 자살 돌격(옥쇄)[옥쇄(玉碎)란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뜻으로, 크고 올바른 일을 위해 명예를 지키며 깨끗이 죽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옥쇄작전이란 궁지에 몰린 패잔 일본군들의 자포자기식 총검 돌격(만세 돌격, 일명 반자이 도쓰께끼)으로 마무리된 작전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군인들은 어찌하든 죽는 결말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지만 군만 바라보고 있던 민간인은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 사이토는 비정한 명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민간인과 군인의 구분은 없다. 민간인도 죽창이라도 들고 최후 돌격에 합류하는 것이 포로가 되어 치욕을 당하는 것 보다는 나을 것이다.”

1944년 7월 7일 새벽, 커다란 적색 깃발을 든 12명의 향도가 앞선 가운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3천 명의 병력이 미군을 향해 최후의 돌격을 감행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 뒤로 무장은 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반신 불비

<sup>12)</sup>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074&cid=47307&categoryId=47307>

<sup>13)</sup> 김창원, 군사연구가(출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57&contents\\_id=68211&series\\_id=2585](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57&contents_id=68211&series_id=2585))(2015.2.7. 접속)

상태의 부상병들이 비틀거리며 따라나선 것이다. 태평양 전쟁 사상 최대의 옥쇄(자살돌격) 작전이 실행되었다. 미군은 포로들로부터 자살 돌격이 곧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본군의 광폭하고 맹목적인 돌격은 미군의 화력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 대규모 자살 공격에 압도되어 미 육군 105 연대의 1대대와 2대대에서 6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5시간이나 계속된 전투 끝에 미군들은 4천3백 명의 자살 돌격대를 사살하고 돌격을 저지시켰다. 이때 일본군 최고 사령관 사이토와 부하 지휘관인 히라쿠시와 이케타는 동굴에서 할복(칼로 배를 갈라 자결하는 '하라키리' 의식)으로 자결하였고 나구모 주이치도 자결로 생을 마쳤다.

1944년 7월 9일 미 해군 사령관 터너 중장은 사이판이 점령되었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사이판 전투는 일본군 3만 명이 전멸하고 미군은 3천 명이 전사, 1만 명이 부상당한,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은 전투였다. 일본군 중 포로로 살아남은 사람은 921명뿐이었다.

미군은 전투 후 포로 수용소를 설치하여 먼저 민간인 1천 명 정도를 수용했다. 이들에게는 하루 세 끼의 식사와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후 비전투원 1만 5천 명을 더 수용했는데 일본인이 1만 명, 조선인은 1,300명이었다.

### 3.2 일본 천황이 일본군과 민간인들에게까지 옥쇄(자결)를 명령하다

일본 민간인과 미군이 대거 접촉하게 된 것은 사이판이 처음이었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놀랐는데 일본 민간인들은 강간과 살육을 저지를 줄 알았던 미군이 뜻밖에도 친절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에 놀랐고 미군은 격렬히 저항하다 자결하곤 하는 일본군에 비해 민간인들은 온순하고 순종적인 것에 놀랐다. 군인을 비롯한 일본의 지배계급은 선량한 일반 국민들과는 이렇게 달랐다.

사이판 전투는 살상력이 강한 무기로 서로를 육박 공격하는 근접전이 많아서 군인들과 행동을 같이 하던 일본인 민간인들의 피해가 특히 컸다. 더 비극적이었던 죽음은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칙명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이판의 일본인들이 미군에 집단 투항해 일본 군국주의를 비난하는 미군의 라디오 심리전에 앞장설 가능성을 염려한 히로히토는 1944년 6월 말, 사이판 주민들에게 자살을 권고하는 칙명을 내린 것이다. 자살한 주민들은 사후 전사자와 같은 예우와 명예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칙명을 전달해야 했던 총리대신 도조 히데키는 자살 칙명의 냉혹함에 놀라 발표하지 않고 보류하였다. 그 자신도 일본 군인에게 살아서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에는 자결하라는 전진훈(戰陣訓)을 포고했던 적이 있었지만 민간을 상대로 한 천황의 칙명은 (오늘날 극단주의자들 만큼) 극단적으로 잔인했다.

그러나 도조 히데키의 보류 여부와 상관없이 히로히토의 자살 특명은 방송을 거쳐 사이판의 군 지휘부에 전달되고 말았다. 왕이 이런 명령을 했을 리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선명한 옥쇄가 찍힌 명령서가 진실을 말해 주고 있었다.

### 3.3 '자살절벽' : 민간인 1,000명 '영광스러운 영생을 믿으며' 집단자살

이로 인해 전투의 마지막 순간 약 1,000명의 일본 민간인들이 자결하였다. 상당수가 사이판의 '자살절벽' 이나 '만세절벽(반자이절벽)' 에서 뛰어내렸다. 많은 가족들이 집단으로 투신하는 모습은 끔찍하고도 비극적이었다. 이들은 그들의 신이며 천황인 히로히토가 약속한 내세의 영광스런 영생을 믿으며 목숨을 끊었다.

### 3.4 민간인 1,500명을 구출한 '가이 가발돈' 미군 해병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민간인 구출에 힘쓴 '가이 가발돈'의 활약은 1960년에 영화로 소개되었는데 '전장이여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상영되기도 하였다. 비극적인 전쟁터에서 민간인 구출에 크게 활약한 영웅이 탄생했다. 바로 '가이 가발돈' 일병이다. 그는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으나 일본계 이민자인 나가노 가문에서 양육된 덕분에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능숙했다. 미 해병대에 입대하여 사이판에 오게 된 그는 동굴 속에 숨은 일본인 민간인들과 병사들을 설득해 1,500명의 생명을 구했다. 이 공로로 해군 십사 훈장을 수여했다.

전투는 공식적으로 1944년 7월 9일부로 종식되었지만 잔존한 일본 군인들이 게릴라식 저항은 지속되었다. 오바 사카에 대위가 이끄는 47명의 대원은 512일 간이나 미군을 피해 다니다가 일본이 공식 항복한 1945년 12월 1일에야 미군에게 항복하였다.

### 3.5 오키나와 본토 폭격 개시: '기시 노부스케'가 '도조 히데키'를 맹렬히 공격하다!

미군이 사이판을 확보함으로써 일본 본토가 B-29의 폭격 거리 내에 놓이게 되었다. 사이판을 완전히 평정한 후 미군은 100기의 폭격기로 필리핀과 오키나와, 그리고 일본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하였다.

사이판을 상실한 일본 군부와 고위층은 깊은 충격에 빠졌다. 먼 남쪽 나라 이야기로 여겼던 미군의 포탄공격이 이제는 바로 문 앞까지 온 것이다. 이에 총리대신에 육군대신, 육군참모총장까지 겸하며 일본을 전쟁의 수렁으로 몰아간 도조 히데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된다.

도조를 공격하는 데 '기시 노부스케'가 앞장서는데, 그는 현 일본수상 아베 신조의 외조부로 당시 군수차관이였다. 히로히토는 도조에게 전쟁의 진두지휘를 계속 맡기려 하였으나 관료들의 저항에 못 이겨 도조의 사퇴서를 수리하였다. (그 후 도조는 7월 18일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칩거하다가 전후 미군 헌병에게 체포되어 전범으로 처형된다.)

이때부터 어전 회의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매일 임석해서 전쟁 지도에 깊숙이 관여하던 일왕은大本營,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천황의 직속으로 최고의 통수권을 행사하던 지휘부의 권유에 의해 점차 전쟁 지도에서 발을 빼갔다. 패색이 짙어지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 천황을 전쟁과 관계없는 인물로 만들어 놓자는大本營의 방침에 따라서였다.

### 3.6 오키나와 전투 역시 옥쇄(집단지결) 작전이였다!

사이판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은 미국의 일본 본토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1945년 4~7월 사이에 오키나와에서 최후의 옥쇄(집단지결)작전을 쓰면서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오키나와는 마침내 일본이 패전한 1945년 미군에 의해 점령되고 이후 27년간 미국에 의해 통치된다. 이 기간 동안 미군은 군사기지를 오키나와에 건설하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972년 5월 15일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로 복귀하게 된다.

## 4. 오키나와에 끌려간 한국(조선)인들: 오키나와에서 사라진 조선인들

### -강제징병·강제징용된 조선 청년들과 강제 연행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처녀들-

한겨레21의 650호에 게재된 '오키나와에서 사라진 조선인들'이란 제목의 기사<sup>14)</sup>를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야코지마와 게라마제도에서 강제노역과 전투에 시달리던 한국인 강제징용·징병자들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들...전쟁 말기 끔찍한 노동과 전투와 고통에 내몰려 시달리다가 비밀 유지를 위해 학살당하다>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의 아열대 섬들은 이른바 '납서제도'로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특히 산호

<sup>14)</sup>서재철, '오키나와에서 사라진 조선인들' 한겨레21, 제650호, 2007. 3. 9.

바다는 세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하지만 70년 전 오키나와-태평양 전쟁은 이 천혜의 섬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몰아넣었고, 여태껏 그 상처의 일부가 남아 있다.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전쟁의 아픔 중에는 조선에서 강제로 끌려간 군속 노무자들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처녀들이 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전쟁의 맨 앞에서 소모품처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전쟁 막바지에는 일본군의 집단학살과 미군의 폭격에 의해 죽어갔다. 오키나와 현의 낙도(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인 미야코지마와 게라마제도는 그런 슬픈 역사를 품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한국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며 한국에 우호적인 미야코지마 시 당국: 1만여 명의 한국(조선) 청년들이 죽음의 노역에 시달리다>**

미야코지마는 오키나와 남단의 바다 중에서도 독특한 문화와 풍광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과거에는 일본군의 치열한 작전 지역이었다. 미야코지마 동북쪽 해안에 위치한 후쿠야마는 1944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옥쇄작전’(공지에 몰린 패잔 일본군들의 집단자결 및 자포자기식 총검 돌격으로 마무리된 작전)의 현장이다. 오키나와에서 약 300km 남쪽에 위치한 미야코지마 역시 이 작전의 주요 거점으로 섬 전체에 걸쳐 각종 군사시설이 조성되었다. 이 작업에 동원된 조선 청년의 수는 약 1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군속 노무자로 징용되어 각종 벙커와 진지 공사에 내몰렸다. 특히 지하터널 공사, 가미카제특공대 발진기지 공사, 중·대형 대포 구축용 기지 공사는 사실상 목숨을 내건 작업이었다고 지역 주민들은 증언한다.

후쿠야마 지하터널은 일본군 37연대의 최후 방어선이였다. 바다를 향해 지하에 터널을 파고 조성한 중화기포대로, 바다로 밀고 오는 미군을 상대로 최후 결전을 준비했던 미야코지마의 중추적인 방어시설이었다. 150mm가 넘는 대형 포를 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군 지하터널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터널의 일부 구간은 내벽을 콘크리트로 처리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 봐도 표면이 매끄러웠다. 공사에 동원된 조선인 군속 노무자들이 얼마나 힘겨운 작업에 내몰렸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당시 터널 작업은 곡괭이와 망치, 맨손으로 이뤄졌다. 기계를 쓰면 미군에 발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야코지마는 아열대 기후로 한여름에는 기온이 40℃를 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30℃를 넘나든다. 이런 곳에서 굴파기 공사는 죽음의 노역이었다. 이 지역 교원단체와 역사학자들이 공동 발간한 미야코지마 역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강제노동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 이후 이들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는 “죽었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비밀유지를 위해 집단학살을 당했거나 미군 공격에 내몰려 죽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벌여야 하는 이유다.

**미야코지마 시 당국은 한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할 뜻을 필자에게 밝혔다. 시 당국자의 말이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나 언론에서 미야코지마에서 죽어간 조선인 강제징용자와 위안부의 실태를 조사하려고 방문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주민들도 피해자다.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는 과거를 숨기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야기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용서를 빌고 화해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일본과 한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초석이 된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위안소 주변에는 먹을 물도 없어>**

미야코지마에는 일본군 성노예 조선 처녀들이 거주하던 위안소 현장도 있다. 시청 소재지에서 차로 20분을 가면 나오는 우에노 마을이 그곳이다. 이곳에는 일본군 부대 옆에 위안소가 세워져 10여 명의 조선 처녀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생활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당시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의 건물과 다녔던 길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이곳 출신으로 미야코지마의 시민운동가인 우에사토 기요미는 “위안소 주변에는 마실 물조차 없어서 1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먹어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성노예로 내몰렸다”며 “동네 사람들은 위안부들을 ‘조센삐’[‘삐’는 창녀(prostitute)의 영어 첫 자 p의 발음을 ‘삐’라고 함]라고 불렀다고 할머니한테서 들었다”고 증언했다. 미야코지마에는 모두 11개의 위안소가 있었다.

게라마제도의 아카섬과 자마미섬은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의 언론에도 소개된 해양관광의 명소다. 4km 정도 떨어진 두 곳은 천혜의 관광지이지만 일제 말 징용의 현장이기도 하다. 전쟁 말기인 1944년부터 이곳에는 일본 해군에 의해 비밀 군사기지가 조성되었다. 해군 가미카제의 발진기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해군 가미카제는 바다로 들어오는 미군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 소형 보트나 어뢰를 이용해 자살공격을 하는 임무를 맡았다. 조선 청년들은 해안가의 터널 파기를 비롯해 항만 하역, 무기 및 군수물자 운반, 참호 파기 등 각종 군 노역에 동원되었다. 작업에 동원된 피해자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도 전혀 모르게 일본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작업에 내몰렸다. 특히 전쟁 말기에 비밀유지를 위해 집단학살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증언이다.

한국인 생존자의 증언도 있다. 경북 영양에 거주하는 강인창(87)씨는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해안가 안쪽으로 동굴을 파고 그 안에 해상이나 수중 공격용 가미카제의 장비와 무기를 비축했다. 일본군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다가 미군의 폭격에 죽거나 일본군에 의해 죽어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쟁 말기에는 오키나와, 자마미, 게라마 등 4개 섬에 모두 3천여 명이 끌려와 징용 생활을 했다고 들었다.”

자마미섬 동쪽 해안에 위치한 후루자마미 해수욕장은 오키나와현에서 가장 맑고 푸른 해수욕장 가운데

하나다. 지금은 이곳의 주민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극의 현장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다.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300m쯤 떨어진 숲 속에는 지금도 과거의 기지 흔적인 터널이 남아 있다. 현재는 60년 가까이 숲이 우거져 기지의 입구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아열대림 특유의 울창함으로 과거 흔적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조선 청년들이 수없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다. 제주도의 남쪽 해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본 해군 비밀기지 시설들이 남아 있다.

#### <오키나와로 끌려간 조선 청년들의 고통의 삶과 생사여부, 역사의 기록은?>

조선에서 오키나와로 끌려온 청년들은 주로 군 소속의 노역에 동원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상북도 전역에서 끌려왔다. 당시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한 이후 1천 명 정도의 생존자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살아 있는 생존자가 극소수다. 누구에 의해 끌려갔고 무엇을 하다가 죽어갔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제와 관련한 매듭 중 친일 문제의 단죄는 못할망정 역사의 기록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절실함을 오키나와의 낙도(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는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은폐와 외면, 한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조선 청년들의 원혼은 지금도 태평양을 떠돌고 있다.

### 5. 한국인 기사가 취재한 오키나와의 비극: 끌려간 한국인 청년들·위안부들, 제주도에 일본군 상륙!

한승동 기자가 오키나와 현지 취재 내용을 <아시아 저널>에 ‘오키나와’ 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실은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sup>15)</sup>

<sup>15)</sup> 한승동 기자, 아시아저널, 2014년 봄, 제8호 기획 시리즈 ‘아시아 기억의 공간, 오키나와’, 2014. 3. 16.

오키나와 함락 이후 미군의 주된 상륙 지점은 큐슈가 될 테고, 이때 미군의 제주도 공략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주도가 최전선으로 다가온 것이다. 만일 그때 오키나와 전선이 무너진 뒤에도 일본이 전쟁을 계속했다면 제주도에서 오키나와의 비극이 되풀이됐을 가능성이 높다. 7만5000명의 일본군 병력이 결사항전을 위해 제주도에 들어간 것은 1944년 3월에 신설된 오키나와 수비군인 일본군 제32군이 결사항전을 위해 오키나와에 들어간 것과 같은 연장선상의 작전이다. 다행히 제주도는 오키나와 같은 비극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미 그 전에 많은 한국(조선)인들이 오키나와에서 비참한 참극을 겪었다.

**<오키나와 전쟁 이전부터 살던 한국(조선)인 가족이 일본군에 무참히 학살당하다>**

1945년 8월 20일,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섬 구메지마(久米島)에 전쟁 전부터 살고 있던 조선인 구중회(具仲會)[일본 성 다니카와(谷川)]씨 일가족 7명이 근거도 없이 미군과 내통한 스파이 혐의로 일본군 손에 학살당했다. 오키나와 여성과 결혼해 다섯 아이를 낳고 살던 구씨 일가족은 이미 일본이 항복한 뒤에도 투항하지 않고 있던 일본군의 손에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후텐마 기지 바로 옆에 있는 사키마(佐喜眞) 미술관에 가면 <오키나와 전도(戰圖)>라는 가로8m, 세로5m짜리 수묵채색화 대작이 한쪽 벽면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다. 히로시마 원폭과 난징 대학살, 아우슈비츠 참극을 그린 화가 마루키 이리(丸木位里)와 마루키 도시(俊) 부부가 함께 그린 이 대작은 바로 강제 집단자살(집단 강제사)이 자행된 오키나와 주민 학살 참극을 묘사하고 있다. 거기에 이 구메지마의 조선인 일가족 학살 장면도 들어 있다. 구씨가 나무에 매단 밧줄에 목이 매여 죽은 채 누워 있고 어린 아들이 그의 몸을 안고 울고 있다. 그 옆에는 그들 가족이 일본군 총칼에 학살당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

사키마 미술관 <오키나와 전도> 도록 첫머리에 두 부부 화가가 쓴 글이 실려 있다(일본군에게 '집단자살'(옥쇄)을 강요당한 내용).

부끄러운 짓 당하기 전에 죽어라  
수류탄을 주세요  
낮과 핑이 면도칼로 헤라  
아버이는 자식을 남편은 아내를  
젊은이는 노인을  
에메랄드 바다는 핏빛으로  
집단지결(집단 강제사, 옥쇄)이란  
스스로 한 게 아닌 (일본군에 의한) 학살이다

2014년 3월 16일 사키마 미치오(道夫)씨가 관장으로 있는 사키마 미술관으로 찾아갔다. '사키마'라는 성씨는 1676년 류큐왕국의 상징왕이 장헌공 가문에 내린 성씨이다. 따라서 사키마 미치오 관장은 조선의 세라미스트 장헌공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된다(15항 참조).

사키마 관장은 후텐마에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아버지 덕에 미군으로부터 군용 지료를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인데, 일찍이 본토에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오키나와가 겪은 비참한 전쟁체험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본토인들의 오키나와 출신자들에 대한 편견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런 그가 마루키 부부의 대작 <오키나와 전도>를 전시하기 위해, 후텐마 기지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일부를 군용지계약 갱신 때 돌려받아 미술관을 지었다. 오키나와 평화학습의 명소가 된 사키마 미술관에는 매년 4만 명 정도가 찾아온다.

구씨 일가 7명의 이름은 24만 명의 희생자들을 검은 비석들에 새겨 놓은, 이토만시와 인근 시마지리군에 걸쳐 있는 오키나와평화기념공원 내의 평화의 비(1995년 건립)에도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구씨 집안이 아니라 일본 이름인 다니카와(谷川)씨 일가 이름으로 되어 있고, 한국과 북한 희생자들 이름이 새겨진 비석 구역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이 아니라 오키나와 희생자비 구역 비석에 새겨져 있었다.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 중의 하나인 기노완의 가카즈 구릉 위에는 군부(軍夫) 군대의 일도 외주는 일꾼)로 끌려가 탄약운반, 진지 구축, ‘인간폭탄’으로 희생당한 조선사람 386명을 추모하는 ‘청구의 탑’이 세워져 있다.

<전쟁에 끌려간 조선인 군부(軍夫)·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요된 ‘집단지결’과 ‘옥쇄’로 희생당하다: 한국(조선)인 위안부 1,000명>

게라마제도의 도카시키편(渡嘉敷)섬에서는 전쟁 말기에 조선인들이 미군에 투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군이 토벌대를 편성해 많은 조선인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게라마에는 조선인 군부(軍夫) 약 1천명과 위안부로 끌려간 어린 조선인 여성 2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 중 군부 수백 명과 위안부 4명이 그렇게 희생당한 사실을 기록한 ‘아리랑의 비’가 도카시키편에 세워져 있다. 도카시키편에만 200여명의 조선인 군부, 7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끌려가 있었다.

게라마 제도 내의 자마미섬과 아카(阿嘉)섬에도 조선인 위안부들이 7명씩 한 조로 투입되었고, 조선인 군부들이 자마미에 300명, 아카에 350명이 배속돼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전쟁 말기에 주민과 병사들을 ‘집단지결’(옥쇄)로 몰아간 일본군에 희생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카섬에서는 1945년 2월 조선인 군부(軍夫)들로 짜여진 수상근무대가 투입되었는데, 일본군이 이들 조선인들을 특히 심하게 차별해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해 4월 7명의 조선인들이 산 속으로 도망갔다가 발견돼 처형당했고 나머지 조선인 군부들이 30~40명씩 좁은 굴속에 유폐 당했다. 일본군은 그들에게 용변을 보는 경우를 빼고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곳에서 적어도 12명의 조선인 군부들이 처형당한 것으로 보인다.

차탄의 가데나 지역에는 위안소와 이들의 정기검진

을 위한 병원이 있었다. 거기에 “나이 16~17세로 일본이름으로 불리던 조선인 소녀들이 있었는데, 일본 헌병들이 그들 중 한명이 몸이 망가져 위안부 노릇을 거부했기 때문에 ‘마치 동물을 다루듯 난폭하게 두들겨 팬’ 뒤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남아 있다. 위안소는 오키나와에만 130여개 소가 설치되었다. 거기에는 오키나와 여성과 일본 여성들도 위안부로 와 있었지만 대부분 10대 20대의 키가 크고 피부도 희었다고 주민들이 기억하는 조선인 여성들로 채워졌다. 먼 섬 구석구석까지 설치된 위안소 130여개에 조선인 위안부들이 7명씩 배치되었다면, 그 수는 1천 명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산된다.

## 6.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를 세상에 처음 알린 배봉기 할머니와 김학순 할머니

“도카시키편에 일본군이 주둔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위안소를 설치했다. 거기에 보내진 7명의 조선인 여성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아키코[한국명 배봉기(裴奉奇, 30)], 기쿠마루(28), 가즈코(23), 하루에(또는 하루코, 23), 스즈란(20), 아이코(16), 미짱(16) 등 모두 일본 이름으로 불렸는데, 가네코라는 조선인 남성이 관리하고 있었다.

설날 접대주를 마시고 취한 그들이 미친 듯이 ‘아이고! 아이고!’ 라고 대성통곡하며 울부짖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안부의 비극과 고통을 알게 되었다.”

배봉기 할머니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도 기구하다. 1945년 3월23일 위안소가 미군 폭격으로 파괴되어 함께 있던 하루에가 죽었다. 미군이 상륙한 뒤 산 속에 진을 친 일본군을 따라간 그들은 취사반 역할을 했지만 먹을 게 없어 굶다시피 했다. 그해 8월 26일 그곳 일본군이 무장 해제된 뒤 미군에 의해 오키나와 이시카와 수용소로 보내졌다. 함께 간 가즈코는 조선인 남성과 살림을 차렸으나, 이는 사람도 돈도 없었던 데다 일본말도 제대로

로 할 줄 모르는 배봉기 할머니는 1년여 만에 술집 취객을 상대로 몸을 팔수밖에 없었다. 미군도 일본 당국도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조선인 귀환자들을 태우고 가는 배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온몸이 망가진 배봉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생활보호자 인정을 받으려 했을 때 호적이 문제가 되었다. 그는 존재했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다. 생활보호는 커녕 강제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주위사람들도 옴으로 특별체류허가가 내려졌고 그 때문에 그가 위안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배봉기라는 이름도 세상에 알려졌다. 김현옥이라는 조선사람 부부가 그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그들이 민단이 아니라 총련 소속이어서 배봉기 할머니는 이후 한국정부나 그 곳 한국영사관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는 배봉기 할머니의 출현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으나,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 받은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위안부 문제 자체가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지 못했다. 총련 소속 조선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배봉기 할머니는 이중삼중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한국 정부나 한국사회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 김학순 할머니가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한, 가장 치욕스런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1991년 10월 세상을 떠난 배봉기 할머니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며 귀향을 권하는 주위사람들 얘기에 이렇게 말했다. “고향에 돌아간 꿈을 꿀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지금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꼬...”

조선인 성노예들은 한 사람당 매일 10~20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겨우 3, 4분 만에 차례가 된 자가 잇따라 들어갔다”는 증언도 있다. 위안부들은 항상 굶주려 근처 주민들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한다.

“일본군은 위안부 여성들을 출신지별로 차별대우해 장교전용 위안소에는 규슈나 오키나와 출신 위안부를 배치했다. 그들은 식사대접도 받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며, 때로는 외출까지 할 수 있어서 조선인 위안부들보다 나은 대우를 받았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1천명 이상의 10대, 20대 조선 여성들을 비롯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오키나와로 연행된 조선인들 중 희생자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평화의 비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고 새겨진 비석에 올라 있는 희생자는 441명밖에 안 된다 (Fig.5 참조).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가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표역에 준비되어 있는 비석들 다수는 아직 이름도 없는 빈 비석으로 남아 있다. 그 옆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석에 새겨져 있는 이름은 수십 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북한비석에는 대만인 희생자들 이름이 옆에 새겨져 있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비석을 쓰는 것이다.

조선인 희생자가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것은 실제 희생자들이 적어서가 아니라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화의 비 건립자 쪽도 앞으로 확인될지도 모를 조선인 희생자들 추가에 대비한 것인지 이름을 새기지 않은 빈 비석들을 같은 구역에 죽 세워 놓았다. 확인



Fig. 5.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에 있는 ‘평화의 비’<sup>16)</sup>.

<sup>16)</sup> <http://blog.naver.com/hanjoo0922/90133283300>(2015.2.9. 접속)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이 되지 않는 것은 주로 전후 일본 당국의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의면과 무시 때문이지만, 위안부로 끌려온 희생자들의 경우 유족들이 비석에 등재하기를 거부하는 등 여러 이유들이 있다. 그리고 전시에 일본 이름을 쓸 수밖에 없었던 많은 조선인 희생자들이 일본인으로 오인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도 지금까지 오키나와인이나 일본인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 7.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중군위안부, 정신대)의 진실과 분노와 절규

-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위안부(성노예)’가 있었다! 8~28만 명의 위안부(성노예)의 진실과 분노! 일본군위안부제도는 ‘타 인종 멸종’ 음모인가?-

일본은 1930년대 초부터 일본 육해공 부대 전체에 군위안소를 세우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강제로 여성을 끌고 가서, 군인들의 성노예로 사용했다가, 전쟁이 끝난 후 현지에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군인들은 이 여성들을 일왕의 하사품으로 여겨, 그들의 성적 충동을 해소하는 데 사용했다. 그 여성들 중에서도 조선의 미혼 여성이 가장 많았다. 이 여성들을 우리는 ‘군위안부’라고 한다.<sup>17)</sup>

식민지의 경우에는 피해 여성들은 취업사기, 경찰과 군의 개입, 납치 등의 방법으로 동원되었다. 전쟁을 하면서 점령한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납치유괴하거나 마을의 유력자를 통해 모집하였다.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직접 개입한 예로는 1941년 6월 이른바 ‘관동군특별대연습’이라는 대소련 준비작전 때 위안부동원계획이 세워진 것을 들 수 있다. 관동군사령부 제3과(보급담당) 과장이었던 당시 육군중좌 하라 겐시로(原善四郎)가 위안부 동원계획의 책임자였다. 그는 80만 명의 작전부대 병

사들의 성적 욕구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감안하여 “필요한 위안부는 2만 명”이라는 숫자를 산출하였다. 이것은 병사 40명당 1명의 위안부로 계산한 것이다. 하라는 곧바로 경성(서울)으로 날아가서 조선총독부에 여자 2만 명의 동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같은 해 8월까지 약 8천명을 모았다고 한다. 친일세력도 한 몫을 하였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양녀였던 배정자는 일본군부의 후원으로 칠순의 몸을 무릅쓰고 한국(조선)여성 1백여 명을 군인 위문대라는 명목으로 강제동원하여 남양군도로 유인하여 갔다.<sup>18)</sup>

일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위안부’가 있었다. 위안소는 동과 북으로는 알류산 열도와 소련 접경지역, 남쪽으로는 뉴브리튼 등 태평양의 군도, 서쪽으로는 인도 안다만제도에 이르는 일본군 점령지역에 분포하였다. 일본군은 조선, 대만, 일본 여성뿐만 아니라 점령지 현지 여성들도 연행하였다.

일제는 범죄 추궁을 염려하여 자료를 소각했기 때문에 현재 그 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없다. 당시 관동군 육군 장교였던 하라(原善四郎)는 군인 대 위안부를 40:1로, 육군성 의무과장 긴바라(金原節三)는 동원 방침이 100:1이었다고 하고, 재일 사학자 김일면은 29:1로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7~1945년 당시 일본군이 724만여 명, 군속이 약 38만 명으로 합이 762만여 명이었다. 이외에 각지 파견 관리까지도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전체 800만 정도로 잡으면 군 위안부는 최소 8만에서 28만이란 수치가 된다.

폐전소식을 들은 일본군은 자기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연합군의 공습이 있으니 여자들은 참호에 들어가라고 해놓고 폭파하거나, 동굴 속에 피신한 위안부들을 나오라고 하고는 기관총으로 사살했는데, 그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식민지 민족의 명예를 지고 강제동원된 위안부가 가

<sup>17)</sup> 한국정신대연구소 지음, “할머니 군위안부가 뭐예요?”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0), 10.

<sup>18)</sup> Ibid., 19-30.

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밝혀 공적·역사적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한국침략으로 인한 민족적 수모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일본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양심 세력과 정부당국의 협력을 얻어 이 문제를 밝히고 정리하는 일은 비명에 간 위안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요, 역사를 앞으로 이끄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일에 일본이 협력할 때 일본도 과거에서, 전쟁범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는다.**<sup>19)</sup>

**<일본군 위안부(성노예)의 신체적 상처 및 정신적 상처와 PTSD(정신적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

(위안부 1) 나는 위안소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온몸이 다 아프다. 젊었을 때는 매달 생리를 할 때마다 통증이 어찌나 심한지 이틀 정도는 방안을 때굴때굴 굴러다녔다. 또 늘 하혈을 했다.

(위안부 2) 나는 키가 160cm인 큰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작아졌다. 계속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나는 뼈가 부서져 없어져 버렸다. 체형이 완전히 변형 되어버린 것이다.

(위안부 3) 가족도 동네 사람들도 나를 더러운 여자라고 수군거리며 나를 피하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후 고향을 떠나서 방 하나를 얻어 살고 있는 나는 천애고아나 다름 바 없는 신세다.<sup>20)</sup>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들의 증오에 가득 찬 절규>**

(위안부 1) 저 악마들에게도 나와 같은 또래의 딸이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내 나이 15세에 이렇게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단 말인가? 나는 죽을 때까지 일본 군인들을 증오할 것이다. 일본 군인들이 그토록 잔악한 짓을 했던 것도 당시 일본 정부가 그것을 지지해주었기 때문이

다. 당연히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그 죄를 인정(사죄)하고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당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손실에 대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위안부 2)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다니,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인가? 결혼도 할 수 없게 된 나의 일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입에 발린 사죄만 늘어놓다니,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어서 눈을 감기 전까지는 내가 당한 일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죽어서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안부 3) 지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원수는 일본이다. 일본만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올 리도 없고 이런 생활을 할 까닭도 없었다. 말하자면 일본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남아 있고, 꿈에도 그리운 조국에도 가볼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일본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를 이곳 중국에까지 끌고 와서 우리의 생피를 빨아먹다가 우리를 내동댕이치고 자기들끼리만 돌아가 버린 일본 정부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본 정부는 과연 이 사실에 대해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일본 정부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다. 돈 몇 푼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를 좀 더 철저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sup>21)</sup>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한 일본 우익의 최근 동향>**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2015년 1월 26일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아사

<sup>19)</sup> Ibid., 142-144.

<sup>20)</sup> 미네기시 겐타로 지음, 박옥순 옮김, “천황의 군대와 성노예” (서울: 도서출판 당대, 2001), 13-24.

<sup>21)</sup> Ibid., 35-37.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히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의원, 학자, 언론인 등이 포함된 일본인 8700여 명은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제2차 세계대전 때 제주에서 다수의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증언) 관련 기사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1인당 1만 엔(약 9만2000원)의 위자료 지급과 사죄 광고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씨 기사로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제사회에 퍼뜨려 일본인의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번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다며 원고의 수가 1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송단을 이끄는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 조치(上智)대 명예교수는 "아사히신문이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을 준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 측은 소장을 받아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소송 원고들이 '강제연행'의 의미를 편협하게 해석한 나머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술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지난해 10월 성명에서 "아사히신문의 오보와 상관없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깊이 관여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또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중국 산시(山西) 성과 인도네시아 자바 섬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한국에서도 강제연행 당했다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sup>22)</sup> 또 교도통신은 2월 10일에도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민 400여명으로부터 추가로 제소 당했다고 보도했다.<sup>23)</sup>

<sup>22)</sup> 동아일보 2015.1.28.

<sup>23)</sup> 동아일보 2015.2.10.

<sup>24)</sup> 동아일보 2015. 2. 6

### <미국 역사학자 19명, 아베 일본 총리의 미국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 비판 집단성명>

미국 코네티컷대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지난 2015.2.5 일(현지시각) 미국 역사협회(AHA) 소속 역사학자 19명이 연대 서명한 '일본의 역사가들과 함께 서서(Standing with Historians of Japan)'라는 제목의 집단성명을 공개했다.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처럼 특정 이슈를 놓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던 일로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집단성명에서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성 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나라의 역사 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거론하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출판사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 문헌을 통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의 신중한 연구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sup>24)</sup>

<미국무부 공식반응: 일본 '위안부 교과서 수정' 시도에 '학술자유 강력지지' 발표> - 천황제에는 타민족 멸종 암호(음모)가 숨겨져 있다 -

일본 정부가 미국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 수정을 시도한 것에 대해 미국 내 역사학자 19명이 집단 반박 성명을 낸 데 이어 미 행정부도 '학술의 자유를 지지한다'며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미국무부 대변인실은 2015년 2월 8일 **“우리는 민주 사회의 토대가 되는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역사학자들이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증언을 바탕으로 동료 학자들의 검토 과정을 거쳐 출간한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한 일본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학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국무부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치유(healing)와 화해(reconciliation)를 촉진하는 쪽으로 과거사 문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sup>25)</sup>

이상과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는 무엇인가? 일본이 본래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든 것은 천황제 아래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천황의 절대적 권위로써 타민족을 무시하고 타민족을 멸종하려는 음모에서 출발한 것(호모사피엔스적 전략<sup>26)</sup>)이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본은 천황제 개혁 없이는 결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세계와 공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천황제 아래서 황국사관을 가지고 있는 한 일본은 궁극적으로는 과거처럼 '일본 이외의 타민족 멸종 전략'인 '호모사피엔스 전략'<sup>26)</sup>을 떠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먼 나라에서 장기간 동안 그렇게 잔인한 육**

**쇄전투를 벌인 이면에는 위안부(성노예)제도를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으로 은밀하게 계획·추진하였던 것은 틀림이 없다.**

**<남태평양 작은 섬 나우루에 끌려간 황선순 위안부 할머니와 A 할머니 별세>**

멀리 남태평양 피푸아뉴기니 근처의 작은 섬 나우루에 끌려가 3년간 일본군 위안부로 고초를 겪다가 해방 후 돌아와 고향인 전남 장성에서 여러 질병으로 힘들게 살아온 황선순 할머니는 2015년 1월 26일 89세로 별세했다.

황 할머니는 1926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동생과 함께 지내던 황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17세 때였다. 고모 집에 밥을 얻어먹으러 가던 중 “부산에 있는 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낯선 남자들의 말에 속아 따라나선 것이 고통스러운 3년 세월의 시작이었다. 1945년 광복된 후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왔지만 형편이 어려운 데다 뇌경색 당뇨 등 질병으로 오랜 기간 힘겹게 살았다. 황 할머니는 꿈 달던 어린 소녀시절을 고국에서 지구의 끝처럼 느껴질 정도로 멀리 떨어진 적도 부근의 남태평양 섬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고초를 당하면서 평생의 꿈을 날려 보낸 것이다. **고국의 국력이 약하기도 했지만 일본은 왜, 무엇 때문에 17세 소녀의 꿈을 이토록 짓밟은 것인가? 왜? 일본만 살아 남기 위한 '호모사피엔스의 전략'을 위해서인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황선순 할머니에 이어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가 2015년 1월 31일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또 운명했다고 밝혔다. 황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일 만이다. 올해만 벌써 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정대협 측은 “생전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피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성함 등 개인정보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

<sup>25)</sup> 동아일보 2015.2.10.

<sup>26)</sup> 이홍림, “한·일 관계에 장밋빛 미래는 기대할 수 있을까?”, 세라미스트, 17[4] 80-115, (서울: 한국세라믹학회, 2014).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고 밝혔다. 황선순 할머니와 A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53명으로 줄었다. 정대협은 “하루 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 8. 오키나와(류큐)인들이 일본군에게 ‘집단지결’을 강요당하다!

-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오키나와인들처럼 ‘집단지결’을 강요당하고 한국어를 잊어버린 채 일본어를 말하는 일본인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2007년 9월 오키나와 주민 11만 6000여명이 집단 시위를 벌인 것은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이 고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던 ‘집단지결(집단 강제사)’ 사실을 2008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교과서에서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집단지결’이 일본군의 명령에 따른 게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일부 군 간부들이 소송을 내자 그것을 구실로 삭제지시를 했던 것이다.

재판은 결국 원고들 패소, 즉 당시의 ‘집단지결’이 명령에 따른 게 아니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판결로 귀착되었지만, 그럼에도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삭제한 상태로 두고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중앙정부 또는 본토인들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오키나와 전투 때 주민들은 미군에 대한 공포도 컸지만 당시 “미군보다 일본군이 더 무섭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일본군을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 일본군이 집단지결을 강요한 원인으로는, 일본군 자신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오키나와 주민들이 포로가 되거나 해서 그 내부사정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키나와 주민들은 모두 스파이”라고 했을 정도로 주민들에 대한

일본군의 차별과 불신, 잔인함과 심부름을 해주고 식량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포에 떨던 주민들은 전장터에 나가 죽거나(전사), 미군의 포로가 되거나, 일본군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결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게라마제도의 자마미 섬에서 벌어진 ‘강제 집단 자결(집단 강제사, 옥쇄)’ 사례>

- 일본의 자살테러(가미카제 특공대)와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도록 강요하는 집단 강제자결(옥쇄)은 오늘날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보다 더 잔인하다! -

오키나와 본섬 남서쪽에 있는 게라마제도(慶良間諸島)의 자마미(座間味)섬에서 벌어진 ‘집단지결(집단 강제사)’ 비극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마미섬의 미야히라(宮平) 우타씨(당시 43살) 부부는 아이들 3명과 함께 자기 집에 파 놓은 방공호로 피난했다. 그들은 그 때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일본군 32군 부대원들로부터 ‘옥쇄’ (자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미군이 함포에서 쏘아대는 포탄 파편을 뚫고 집합장소인 층층비까지 가니, 일본군 병사가 방공호에서 ‘옥쇄’ 하라며 수류탄을 주었다. 일본군은 우타씨에게 ‘미군이 오고 있다! 빨리 아이들부터 죽여!’ 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아내의 목을 자르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면도칼로 몇 차례 그는 뒤 11살 아들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살, 15살의 두 딸,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을 잘랐다. 아들은 죽었고, 나머지는 빈사상태의 중상을 입은 상태로 미군의 손에 구출되었다. 우타씨 일가족처럼 남자가 있는 가족일수록 희생은 컸다. 죽은 사람 중 여성과 아이들(12살 미만)이 83%나 차지했다. 거기에는 ‘적’에게 당하기 전에 자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가부장제사회의 성도덕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자마미섬에서는 촌장이 하 마을의 리더들이 모두 일가족 ‘집단지결’을 했으나

일본군이 주둔하지 않았던 마을이나 섬들에서는 ‘집단자결’이 없었다.”

이 자료가 지적하고 있듯이, 오키나와 주민들의 집단자결은 주로 일본군의 중용과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 집단자결에 사용된 도구는 수류탄과 면도칼 외에 청산가리, 손도끼, 팽이, 낫, 노끈, 식칼, 농약, 돌, 목재 등으로,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이 흉기가 됐다. 그런 ‘집단자결’이라는 학살이 오키나와 본섬은 물론 주변에 흩어진 수 많은 섬들, 심지어 먼 대만 인근의 요나구니(与那国)섬에서도 자행되었다.

2015년 1월 25일 일본인이 IS(이슬람국가)의해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당해 일본열도와 세계를 경악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일본은 침략전쟁 당시에 이미 이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은, 잔인하게도 가장이 자신의 가족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옥쇄를 감행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침략사실을 부정·왜곡하고 과거의 전쟁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도 똑같이 한 것을 했을 뿐이라는 명분으로 사과와 반성 없이 헌법을 재해석하거나 또는 헌법을 개정하여 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아베는 후세들에게 과거 침략전쟁의 일을 자랑스러운 일본의 역사로 미화하여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고치고 있는 것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또 다시 침략근성을 유전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군의 ‘옥쇄(집단자결)’ 강요 사전: 한국 기자의 오키나와 현지 취재 기사>

오키나와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동아일보의 최근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7)</sup>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한 뒤 죽임을 당하고 남자들은 고통스러운 고문 뒤에 죽게 될 것이다. 자살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미군에게 밀리게 되자, 일본 군인들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옥쇄작전(집단자결)을 위해 폭탄을 나눠줬다. 선택이 가능한 제안이 아니었다. 가족끼리 파편에 잘 맞을 수 있도록 원을 그리며 둘러선 뒤 폭탄을 터뜨렸다. 불발하면 가장이 부모와 아내, 어린 자식들을 직접 죽이고 자결을 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들이 숨어 있던 토굴 주변에선 면도칼 같은 도구들이 유난히 많이 나왔다. 군인들은 현지 주민들이 미군에게 사로잡히면 자신들의 동향이 새어나갈까 봐 이렇게 류큐(오키나와)인들에게 ‘집단자결’을 강요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군인들은 또 주민들이 가진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말라리아가 창궐하던 산으로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

태평양전쟁 중 있었던 오키나와(沖繩) 전투에서 일본군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겼다. 1945년 4월 1일 미군의 상륙과 함께 3개월간 지속된 전투에서 20여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9만 4000여 명이 섬 주민이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산호초로 유명한 오키나와가 품은 아픈 역사다. 오키나와는 원래 고유의 언어(류큐어)를 사용했지만 1940년대부터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일제가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편 것과 같은 이유인 일왕의 국민으로 만든다는 황민화(皇民化) 정책에 따른 것이다.

채널A 개국 3주년 기획 취재를 위해 오키나와를 찾은 허진석 기자에게 오키나와에서 전투 당시의 참상을 들려준 노인을 포함해 그곳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을 ‘강제 집단자살’의 길로 내몰았던 그 일본인들과 같은 일본말을 쓰고 있다. “만일 대한민국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한반도에서도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공상에 모골이 송연해졌다.”(취재 기사).

<sup>27)</sup> 허진석, 동아일보, 2014. 11. 28.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오키나와의 이런 역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한 염원을 키웠다. ‘군인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안감도 그들의 가슴엔 남아 있다.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경향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유다.**(이상 허진석 기자 글)

**<오키나와의 비극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영국 신문기자 프레드릭 매킨지(Frederick Mckenzie)는 잠재력이 무한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일본은 애초부터 한국인을 경멸했다. 나무꾼이나 지게꾼으로 밖에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했다. 한국인의 민족적 이상을 말살시켜 일본인으로 만들되 지배계급과는 다른 열등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또 매킨지는 **“조선보다 더 열등한 일본 민족이 4,000년 역사를 가진 자기들보다 더 우수한 조선 민족을 동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한국의 민족성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다”**고 했다.<sup>28)</sup>

일본의 지배세력이 오키나와인들에게 무자비하게 비인간적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점령해버린 후에 류큐어를 금지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나라가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비극적인 오키나와의 과거사를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9. 한국(조선)인 강제징병·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은 임진왜란에 이은 또 하나의 한국(조선)인 멸종 음모인가? 아베의 일본(지배계층)은 왜 역사 지우기와 침략 전쟁 합리화·미화에 몰두하고 있는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조선)인을 멸종시키고 대한민국 문화재를 멸절한 다음, 일본인들을 조선에 이주시키려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젊은이들을 강제징병·징용 및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강제 연행해가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도조 히데키는 일본 총리가 되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에서 징병제와 학도병 지원제를 실시하는 등 도조(東條) 독재체제를 수립한, 천황 다음의 일본 실력자로서 실질적인 전쟁 책임이 천황에 이어 매우 크다.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은 일본 통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당시 일본 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전후 반세기가 지나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관련 사실을 전범으로 인정한 미국>**

미국 법무부는 1996년 12월 ‘일본인 전범 용의자 16명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의 이 조치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일본인은 **“당신은 일본제국 군대의 조종으로... 정신대 또는 생체실험 등의 잔학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문구가 적힌 비자 신청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대와 생체실험에 가담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전범용의자 16명의 미국입국이 금지되었고 그 후에 전범용의자 수가 더 늘어났다. 그동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정권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시켰지만, 정신대와 생체실험 등 일본 제국주의 군대 관련자를 ‘전범’으로 규정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뒤늦게나마 미국 정부가 일본군 강제 종군위안부 관련자를 ‘전범’으로 인정하게 되어 전후 반세기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일제의 야만적인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일제의 조선 여성 강제 종군위안부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본군의 생리적인 욕구를 처리

<sup>28)</sup>이홍림, “한·일간의 세라믹 기술 전쟁”, 세라미스트, 17[3] 68-95, (서울: 한국세라믹학회, 2014).

하는 수단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조선)민족의 말살(멸종)을 기도하는 음모가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접어들면서 일제는 조선의 청장년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어가고 젊은 여성들을 '중군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강제로 동원했다. 이에 따라 조선 민족의 대를 이을 젊은 남녀 대부분이 끌려감으로써 이 땅에는 어린이와 노인들만 남게 되었다. 더욱이 강제 중군위안부에 동원된 정신대 여성들은 건강한 젊은 여성이 1차 대상이 되었다. 만약 일제의 패망이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조선인의 인구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리 민족은 단절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것이다.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인 처녀들은 이른바 '천황의 공물'로 일본 군인들에게 배당되었다. 당초에는 '29대1(니꾸이찌)'이라 해서 일본군 29명 앞에 위안부 1명의 비율로 배당되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쉽게 무너지고 끌려간 조선인 처녀들은 하루에 50명에서 100명까지도 상대하는 처참함을 겪어야 했다.

이런 참상으로 정신대 여성들 대부분은 몸이 손상되거나 성병에 걸려 위안부 노릇을 못하게 되면 어디론가 끌려가 사라졌다. 왜?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일본군은 위안부 노릇을 못하게 된 소녀들을 모아다가 기관총으로 집단 학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태워 없애버렸다는 증언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는 한국(조선)인을 멸종시키려는 음모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일본(지배층)이 과거사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하려고 일제가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한 방법인 '관민조화'를 위해 또 하나의 음모(암호)를 만들고자 아베의 속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

### 10. 한국 혼이 잠든 '아, 오키나와어!': 일본 해군에 강제징병 당해 희생된 한국(조선)인 아들의 절규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에 강제징집 당해 일본 해군으로 복역 중 오키나와에서 전사한 한국인의 아들이며, 문예시대 한국가람문학회의 고승호씨가 2013년 3월 3일 '한국인의 혼이 잠든 오키나와'라는 제목으로 쓴 수필에 나오는 오키나와 비극의 일부를 소개한다.<sup>29)</sup>

살아생전에 꼭 와보고 싶은, 아니, 꼭 찾아와야만 할 오키나와!

2013년 2월 드디어 아내와 함께 김해공항을 출발하여 두 시간 만에 꿈에 그리던 오키나와(沖繩) 나하(那覇)공항에 착륙하였다. 오키나와는 아버님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 내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여행이다.

오키나와 남쪽 끝자락 이토만시(糸滿市)의 완만한 구릉지인 마부니(摩文仁) 언덕에 위치한 한국인위령탑공원에는 '大韓民國 大統領 朴正熙(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위령탑'이 우뚝 세워져 있다. 한국인 위령탑은 1941년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로 징병당하여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우리의 젊은 영혼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평화의 비석으로, 1975년 8월 광복 30주년을 맞이하여 건립되었다.

아버님은 일본해군에 강제 징병되었다가 1943년 10월 9일 오키나와 근해에서 미군의 뇌격(雷擊)으로 승조원 전원과 함께 스몰아홉의 젊은 나이로 전사했다. 당시 오키나와 최대 격전지인 마부니 언덕 절벽 아래는 태평양의 거센 파도에 밀려 수많은 시체가 떠올랐다고 한다. 그 후 수십 년 만에 위령탑을 세우게 되었으며, 탑을 쌓은 들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수집되

<sup>29)</sup> 고승호, 문예시대 한국가람문학회, 2013. 3. 3.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어 옮겨졌다.

어머님이 1983년 위령제에 참석하시고 28년이 흐른 지금 칠십이 된 아들이 다시 위령탑 앞에 선 것이다. 참으로 머나먼 길을 달려왔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이곳까지 오는데 장장 칠십년이 걸렸으니까!

아버님! 생선 같은 삼남매와 아직도 청춘인 아내를 두고 어떻게 하니 어떻게….,

용솟고 치솟으며 물속으로 꺼져 갈 때 피를 머금은 원통한 찰나를 어떻게 견디며 눈을 감으셨습니까? 가난한 시골에서 다섯 살짜리 어린 아들을 안고 남편 없이 살아 갈 날이 아득해서 멍하니 하늘만 원망했을 불쌍한 어머니! 오랜 세월 산과 바다를 회오리바람처럼 들고 들며 동분서주 모질게 살아온 어머니 일생의 한(恨)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나 죽고 저승가면 이십대 젊은 아버지가 팔십대 이 늙은이를 알아나 보겠나!” 하시며 쓴 웃음을 짓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절절한 사부곡(思夫曲)이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부디 다시 만나는 그곳에서는 두 분이 오래토록 해로하시기를 기도 합니다. 술 한 잔으로 이들의 원(願)을 고하고 돌아서니 위령탑 평화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에 강제 징병, 징용된 1만여 명의 한국인이 전사하거나 혹은 학살되어 이국 만 리 객지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원혼은 지금도 오키나와의 하늘 아래서 비가 되어 땅을 적시며, 바람이 되어 하늘을 방황하고 있다. 이들의 외로운 영혼을 위로 하고자 온 민족의 이름으로 탑을 세워 삼가 명복을 비오니 영령들이여 부디 편안히 잠드소서!

또한 위령탑 앞에는 민족시인 이은상의 「영령들께 바치는 노래」가 새겨진 시비가 있다. ‘바라보면 조국은 원

한의 먹구름, 첩첩이 쌓이고 가린 천리만리, 광풍에 생명의 등불 꺼지던 날, 하늘도 울고 파도도 울고….’ 시인의 구절을 따라 읽다 보니 절로 코끝이 찡해진다. 가신 이들을 조문하듯 무궁화가 심어진 시비 근처를 한참 동안 서성거린다.

영혼 탑을 뒤로하고 오키나와를 둘러보러 나선다. 류큐무라(琉球村)는 참혹한 전쟁의 피해를 모면한 옛 민가(古宅)를 옮겨와, 류큐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도예공방의 도예 기법 등의 자료들을 보면 조선 도공 장헌공을 이주시켜 기와나 도자기 등의 제조기법을 전수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니 참으로 가깝지만 멀기도 한 일본이라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 11.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추모탑’ 건립: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일본에 의해 먼 남태평양 섬까지 끌려가서 희생된 한국인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1943년 4월 18일 부젠빌 상공에서 일본 연합함대 최고통수권자이며 진주만 공격의 주역이었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1884~1943) 사령장관이 전사하는 등 일본군 20여만 명이 전멸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중 국외에서 사망한 일본인은 약 240만 명이며, 이 중 50만 명 정도가 파푸아뉴기니·솔로몬 제도(8만8600명) 등 남태평양 지역에서 숨졌다.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한국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나라이기도 하다.

2014년 6월 13일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가 ‘파푸아뉴기니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추모탑’ 건립식에 한 헌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본다.<sup>30)</sup>

<파푸아뉴기니의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의 슬픔>

<sup>30)</sup> 김성춘 주파푸아뉴기니 대사, 2014. 6. 18.

B.C. 6세기 말 이스라엘의 유다왕국 사람들이 신바빌로니아의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방인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유래한 디아스포라(diaspora 외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산(離散)의 땅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우리는 울었노라 시온을 생각하면서,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 걸어 놓고서...(성경 시편 137)” 그리고 2,500여년 후 디아스포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되어,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가득한 파푸아뉴기니에도 가슴 아픈 이산(離散)의 기억과 자취를 남기고 있다. 일제식민지 조선 청년 4,400여명(추정)이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으로 희생당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군인과 군속이었던 이들의 대부분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20~25세 청년들의 차오르는 그리움과 타오르던 희망은 한줌의 재로 스러졌다. 파푸아뉴기니에는 이렇게 우리 민족사의 상흔이 배어 있다.

**뉴기니지역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희생자를 대략 추정해보면, 우선 해군 군속으로 강제동원되었던 노무자가 1,700여명이었고, 이중 희생자가 1,637명이었다. 또한 지원병이란 이름으로 전투에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병사는 2,710명이었으며, 뉴기니 전쟁의 일본군 희생자가 90%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인 병사 희생자는 2,439명으로 단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뉴기니지역의 강제동원 한국인들은 모두 4,410명이며, 이중 4,076명이 희생되었다고 추산해볼 수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 명부에서 확인된 3,150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 자료)**

일제강점기 뉴기니지역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탑이 파푸아뉴기니 East New Britain(ENB)주 Kokopo시에 건립되었다. 2010년 5월과 9월에 각각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추모탑에 이어 세 번째이다. 파푸아뉴기니 추모탑은 파푸아뉴기니한인회 협조로 추진되었다.

이역만리 밀림 속에서 허무하게 스러져간 영령들이 이

제는 그리움과 한을 다 내려놓고 평안해지셨으리라. 상념의 파편들이 마음속에 출렁인다.

**니체는 망각이야말로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다. 시간이라는 진통제는 괴로움을 치유하는 특효약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흘러도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픔이 있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경고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제징용한인희생자추모탑(파푸아뉴기니)은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또한 역사의 상흔을 밝은 빛 속에 현정하여(바로 비추어서) 교훈을 일깨울 것이다. 건립사업의 시종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민족사의 영욕 굽이굽이를 헤쳐 오늘에 우뚝 서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겨레에게 새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헌사를 바치고 싶다(김성춘 주파푸아뉴기니 대사의 헌사).

**<파푸아뉴기니에 간 아베, 일본인 위령비만 찾고 한국인 추모탑은 외면>**

2014년 7월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인 전몰자 위령비를 찾아 헌화했다. 파푸아뉴기니는 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오거나 전투·노역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4,000여명이 희생된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파푸아뉴기니 라바울에 건립된 한국인 희생자 추모탑은 찾지 않았다. 이날 아베 총리가 방문한 파푸아뉴기니 북부 지역은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치열한 격전이 벌어져 12만여 명에 이르는 일본군이 전사한 곳이다. 현직 일본 총리가 이곳 전몰자 위령비를 찾은 것은 처음이다. 그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생각하는 나라로 남고 싶다는 것을 명령 앞에 맹세했다”면서 “조국을 생각하며 먼 이곳 땅에 쓰러진 12만 명 이상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있다.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복을 빌었다”고 말했다. 아베는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한국인들을 위한 추모탑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을 외면하면서 ‘세계평화’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된 표현이며, 결코 납득이 가지 않는 발언이다. 그것은 일본을 위해 희생당해 그곳에 묻힌 한국인 영령들을 모독하는 일이며,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는 12만의 일본군 장병들의 영령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아베 총리는 모처럼 먼 곳까지 힘들게 찾아간 기회에, 자기 조국도 아닌 아베 자신의 나라 일본을 위해 먼 곳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하다가 젊은 나이에 희생당한 것을 추모하는 한국인 추모탑 앞에서 영령들을 위로하고 헌화하는 것이 자라나는 한·일 양국의 평화와 후세들을 위해서도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왜 아베는 애써 그것을 외면했을까? 일본인 위령비 앞에서는 “세계 평화의 실현을 생각하는 나라로 남고 싶다”고 해놓고... 왜? 아베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일본을 위한 한국인의 희생이 그 정도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아베의 일본(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암호(음모)를 읽어내야만 ‘세계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포로를 불태워, 산 채로 먹었다는 일본군의 “식인(食人) 사례”>

2014년 12월 29일 조선일보에는 “영화 ‘언브로큰(Unbroken)’의 원작에 일본군 ‘식인(食人) 사례’ 묘사... 日우익 주장대로 날조일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sup>31)</sup>

일본 극우 세력이 영화 ‘언브로큰’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원작에 “포로를 불태우고, 산 채로 먹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우익은 철저하게 날조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인육(人肉)을 먹었다는 것이 정말 날조된 것일까?

극우 세력 주장과는 달리, 인육으로 인해 일본군이 전

범으로 처벌된 사례까지 있다. 1945년 2월 일본군은 태평양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미군 포로 8명을 처형하고 5명의 인육을 먹었다. 식량 부족이 아니라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였다. 미군이 승전 후 미군 포로의 행방을 조사하다 이를 밝혀냈다. 전범 재판을 통해 관련 일본군 5명을 사형, 5명을 종신형에 처했다.

전쟁 말기 식량 보급이 중단되자 일본군이 연합군·민간인은 물론 동료 전사자를 먹었다는 증언도 많다. 1944년 뉴기니의 일본군은 ‘일본군 전사자의 시체를 먹으면 처벌한다’는 명령을 하달했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일본군 병사 4명을 총살했다는 증언이 있다.

일본군은 태평양전쟁 때 오키나와는 물론 남태평양의 많은 섬 지역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을 강제 징용·징병하여 데려갔다. 일본군은 한국인들을 강제노역과 전투에 내몰아 20~25세의 젊은 청년들이 억울하게 죽어갔다. 그런데 이처럼 잔인하게 일본군에게 산채로 잡혀 먹히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것도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전의를 다지기 위해서라니 우리는 이렇게 듣기만 해도 괴로운 내용들을 사실여부의 확인도 사과도 하지 않고 부정만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며 아베의 일본 지배계층은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고만 하고 있으니 양심 있는 선량한 일본 국민들도 분통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10~1919년 일본 제국주의의 대한민국 식민통치는 무자비했다. 이 시기 조선총독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한국인은 집어삼켜 씨를 말려야 할 민족”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sup>32)</sup>고 하는데, 일본은 왜 이렇게 다른 민족을 집어삼켜 씨를 말리려고 했을까? 이것은 타민족을 멸종시키고 일본인들만 살아남으려는 호모사피엔스 전략(이것은 대를 이어 지속되는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계층만이 아는 전

<sup>31)</sup> 조선일보, 2014.12.29.

<sup>32)</sup> 이홍림, “한·일간의 세라믹 기술 전쟁”, 세라미스트, 17[3] 68-95, (서울: 한국세라믹학회, 2014).

략)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씨를 말려야 할 민족”이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엄중한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멸종당한다!”라는 더 엄중한 경고를 새겨야 할 것이다.

## 12. 천황제를 지키기 위해 오키나와 전투에서 20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일본

-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의 지배세력이 본토방어와 체제유지를 위한 시간벌기용의 기획 전쟁이며, 국제호지(國體護持,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연합군과 평화(항복)교섭을 벌이기 위한 작전으로, 결국 한반도의 분단과 6.25전쟁을 유발시키고 만다! -

- 중국이 공산화하고 6.25가 터지자 당황한 미국은 일본 점령계획을 180도로 바꿔 군국일본의 직계후예들을 재 등용, 그들에게 전후 일본의 운영을 맡기고, 냉전체제의 동아시아 반공보루로 일본을 육성하기 위해 전쟁범죄자들을 중용·지원하다! -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유일한 대규모 지상전인 오키나와 전투는 처음부터 일본 지배세력이 본토방어와 체제유지를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기획된 전쟁이었고, 오키나와 주민들과 한국(조선)인들은 그 기획 전쟁에 소모품으로 동원된 것이다.

“오키나와전은 ‘본토 결전’의 시간을 벌고, 잘 되면 ‘국제호지(國體護持,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연합군과 평화(항복)교섭’을 벌이기 위한 ‘버리는 돌(捨石) 작전’이었다.”

천황 히로히토와 일본 대본영이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이 시작된 4월 이전 또는 최후결전이 벌어진 6월 이전에 항복을 했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전후 일본

처리문제가 논의된 1945년 7월 포츠담선언 때라도 전쟁을 포기했다면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며, 소련군의 대일전 개입도 없었을 것이고, 한반도가 분단되지도 않았으며, 한국전쟁(6.25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대본영이 오키나와 ‘버리는 돌’ 작전을 벌이며 연합군으로부터 천황제 유지 즉 국제호지(國體護持) 보장을 받아내려 시간벌기를 한 대가는 너무 컸다.

그들은 그 많은 목숨을 희생시킨 대가로 일본만을 위해서는 결국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제가 패전한 뒤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천황제를 존속시켰고 군대를 부활시켰으며, 한때 공직에서 추방하거나 일부 중형에 처했던 A급 전범들(그들 중 아베 총리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도 있음)도 복귀시켰다. 중국이 미국 예상과 달리 공산화하고 한국에서 대규모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일본 점령계획을 180도로 바꿔 군국일본의 직계후예들을 다시 등용한다. 그들에게 전후 일본의 운영을 맡기고, 냉전체제의 동아시아 반공보루로 일본을 육성하기 위해 전쟁범죄자들과 그 주변세력을 중용하고 지원했다. 이미 미군 점령 초기에 히로히토는 자기 측근을 통해 천황제 유지, 즉 자신의 목숨과 지위 보전을 조건으로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미군의 일본 장기 주둔 보장을 약속했다. 특히 1951년에 체결되고 그 다음해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일본 보수 지배자들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본 주권 보전을 전제로 미군에게 시정권을 보장해 주었다. 미국이 오키나와를 ‘반환’ 한 것은 1972년이다. 그때도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키나와의 슬픔은 뿌리가 깊다. 아울러 ‘류큐 공화주의사회’ 건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오키나와인들의 탈일본 움직임의 뿌리 또한 생각보다 깊다. 오키나와는 1872년 일본의 한 현으로 재편될 때까지 500년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간 독립된 류큐왕국으로 존재했고, 고려시대 때부터 한반도와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오키나와인들이 다시 과거 왕국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다시 자립적인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것은 차별적인 일본 본토에 대한 반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시대와 세상 자체가 탈근대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키나와를 규정해 온 근대적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따른 현상일 수 있는 것이다. (한승동 한겨레신문 기자 글 2013. 3. 19)

### 13. 아베의 신군국주의 야망과 독일 브란트의 겸손

#### 13.1 아베의 신제국주의와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연구 · 추적 문제

문학평론가인 경희대 휴머니티스칼리지의 이명원 교수가 주간경향 1106호에 게재한 '잊혀져가는 오키나와의 조선인 위안부' 라는 제목의 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3)</sup>

오키나와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 문제에 대한 연구 중 조선인 학병이나 군부(軍夫)에 대한 연구나 기록이 일부 존재하는 데 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들어 이 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 기간에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과 '성노예화'는 매우 심각한 전쟁범죄이다. 1991년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일본의 사법당국에 식민지 책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이후, 이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 쟁점이 되어 왔다. 일본 정부 역시 위안부 강제동원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 정

부와 군에 의한 강제연행의 범죄성을 사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아베 극우정권의 등장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규명에 저항하는 강력한 역사적 퇴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아베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신우익(新右翼)적인 역사관과 함께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 경향과 맞물린 문제라고 판단된다.

#### <아베의 위험한 야망: 아베는 신제국주의자이자 천황주의 내셔널리스트>

아베는 기본적으로 천황주의(天皇主義) 내셔널리스트(nationalist, 민족주의자)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 당국에 의해 제정된 이른바 '평화헌법'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에 대해 강한 위화감을 갖고 있다. 아베의 정치적 캐치프레이즈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라는 점이 상기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전전(戰前)의 천황제(天皇制) 파시즘 체제에 대한 긍정과 천황주권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념일 것이다.

이런 아베의 극우적 신념은 필연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특유의 우익적 세계관을 교육을 통해 강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그 핵심 문제이다. 첫째, 영토문제로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문제나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한국과의 독도 문제의 경우, 명확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한다. 둘째, 오키나와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한 스파이 혐의 학살 및 집단 강제사(강제자결) 문제의 경우 교과서 기술에서 삭제한다. 이는 전전 일본 정부와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은폐와 연결된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및 전쟁범죄에 대한 기술의 삭제이다. 이 역시 앞의 문제와 연결된 것

<sup>33)</sup> 이명원, '잊혀져가는 오키나와의 조선인 위안부', 주간경향 1106호, 2014.12.23.

으로, 결국 이 세 가지는 전전(戰前) 일본의 역사적 정당성을 긍정하고 옹호하기 위한 아베의 의도가 적극 개입된 문제이다.

<헌법을 무시한 아베의 쿠데타: ‘아베정권은 재앙’, ‘오키나와 전역에 위안소’>

역사인식 문제에서의 이러한 세 가지 사안이 아베식의 ‘아름다운 나라’의 기초라면, 평화헌법의 무력화를 통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이야말로 아베식의 ‘새로운 나라’의 토대이다. 최근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내각회의에서 의결했다. 이것은 헌법조항을 국민투표를 통해 변경하지 않고, 각의에서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헌법을 무력화시킨 쿠데타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거론한 몇 가지 사항만으로도 오키나와에 있어서 아베 정권은 하나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가장 심각한 재앙은 현재의 오키나와가 다시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으로 우경화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아베의 영토관에 있어서 심각한 국제 분쟁의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오키나와현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이다. 이 영유권 문제에 있어 일본이 아베 식의 고유영토론을 밀어붙이고,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통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일본은 외국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외교적 수단으로 최대한 전쟁을 억지하고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해 들어온 외국군에 대해 방위력만 행사할 뿐 상대국의 본토나 기지 등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폐기할 경우, 센카쿠 열도는 우발적인 사태에 의한 무력 분쟁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오키나와 전쟁 당시의 ‘스파이 혐의 학살’이나 ‘집단 강제사(강제 집단자결)’의 은폐 역시 오키나

와인의 관점에서 보면, 기억의 왜곡 혹은 삭제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일본식의 국가주의를 정당화하는 시도로 회귀할 것이다. 그것은 작금의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둘러싼 국가와 오키나와 현민의 투쟁과정 속에서 ‘국익’을 근거로 오키나와 주민의 자립과 자치에 대한 희망을 봉쇄하고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오키나와사의 비극과 밀접한 문제다. 일본군 제32군이 오키나와에 편성된 이후, 오키나와 전역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건설되었다. 전체 140여 개소 가운데 약 40개소에서 조선인 위안부가 강제 연행되었음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오키나와 전쟁 기간에 희생된 조선인이 약 1만 명에 이르는데, 아마도 이 숫자 속에는 상당수의 일본군 위안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오키나와인 입장에서 비극의 일부이다. 조선과 중국 본토, 타이완 등에서 강제 연행된 위안부도 많았지만, 일본군은 오키나와 현장에서 오키나와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동원하기도 했다. 물론 이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반이 치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연구자 입장에서 오키나와 문제를 검토할 경우, 일제 말기 오키나와 전쟁 기간에 오키나와로 강제 연행된 조선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조선인 학병이나 군부(軍夫)에 대한 연구나 기록이 일부 존재하는 데 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개인적인 추론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쟁 기간에 적어도 700명 이상의 조선인 출신 일본군 위안부가 오키나와로 강제 연행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과 대만, 남방과 한반도로부터 강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치밀한 탐구나 실증적 조사·연구 작업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이 최초로 고발된 것은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1972년 당시 오키나와에 체류하고 있던 전 위안부 배봉기 할머니에 의해서였다. 일본군 위안부로 오키나와에 강제 연행되었던 배봉기 할머니는 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에도 고국인 한반도로 귀국하지 않은 채 오키나와에서 고통스런 삶을 마쳤다.

1972년은 오키나와가 미국의 신탁통치에서 일본으로 주권이 반환된 해이다. 이 시기에 전 일본군 위안부였던 배봉기 할머니는 재일조선인 일반이 그렇듯 '무국적자'로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로 오키나와에 강제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상 최초로 고백했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이 일본과 한·일 협정을 이미 체결한 후였고, 더구나 북한과의 체제 대결이 가속화되고 있던 시점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었다.

만일 1972년 당시의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배봉기 할머니와 같은 살아 있는 고통의 역사를 존엄하게 인식했다면 오늘과 같은 역사의 비극적 퇴행은 상당 부분 저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이 든다.

<일본, 국방예산 확대보다 '전쟁방지와 평화유지 연구'가 우선문제>

아베 정권은 2015년 국방예산을 약 50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아베 정권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집단적 자위권 행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내세워 방위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아베는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일본은 이웃나라에 대해 과거 침략전쟁 사실과 위안부(성노예) 강제동원을 부정하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강한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은 과거처럼 침략전쟁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이웃나라에 대해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보다는 오히려 방위비의 많은 부분을 '전쟁방지와 세계평화유지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일에 투자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실로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침략 당한 나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3.2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과 일본의 모습: 독일의 브란트와 일본의 아베

독일의 브란트와 일본의 아베가 인류에게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다음의 사진(Fig. 6~8)들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이상의 사진들(Fig. 6~8)에서 보면,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과거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Fig. 6에서는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 때 731부대에서 행한 끔찍한 생체실험을 한 것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미화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또 Fig. 7에서는 96번(헌법 96조 의미)을 단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은 앞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을 한 일본이 이제 강한 일본을 만들어 군사대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진들은 국민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해 과거 일제하에 절대복종하며 따르듯, 따라줄 것을 일본국민들에게 무언의 암시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 이외의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로서, 그 즉시로 총리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일본에서는 2014년 12월 14일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일본의 신국사상과 천황제에 기초한 '대화론'의 효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법치주의라지만 천황과 대화론이 일본헌법과 별를 위에서 일본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일본 정치가들의 언행이 곧 국민들의 단결된 공통의 의사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정치지도자의 뜻에 거



Fig. 6.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5월 12일 '731'의 숫자가 새겨진 전투훈련기에 올라타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는 모습.<sup>34)</sup> '731'은 제2차 세계대전(일본 침략전쟁) 당시 한국인과 중국인,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인간 생체실험을 했던 일본 관동군 산하 세균전 부대인 '731부대'를 상징하고 있다.



Fig. 7. 지난 2013년 5월 5일에 아베 신조는 프로야구 경기(요미우리 자이언츠 대 히로시마 도요카프)를 앞두고 등번호 96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보도했다. 96번이 일본 평화 헌법 중 '헌법 개정 절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96조를 뜻한다.<sup>35)</sup> 아베는 전쟁 가능한 헌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을, 야구감독이 선수들에게 보내는 싸인(sign)처럼, 국민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96'이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절하지 못하고 복종하는(그렇지 않으면 집단따돌림 당하는) 특수한 '군대조직'과 같다는 사실이 일본의 국가발전에는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해, 이러한 일본에 의해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아온 우리는 당쟁에 몰두하지 말고 반듯하게 정치를 하여 이에 경계하고 대비책

<sup>34)</sup> 출처: <http://blog.naver.com/eg151jk9/120189948099>(2015.2.10 접속).

<sup>35)</sup> 연합뉴스 2013.6.1



Fig. 8. 서독 총리 브란트가 1970년 폴란드를 찾아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폴란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 희생당한 무명용사들이 묻혀있는 묘소에서 브란트 총리는 무릎을 꿇고 과거 침략행위에 대한 사죄를 하는 모습.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 만행을 저질렀던 독일은 그에 대한 사과와 배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원조를 해 주었고 독일의 우수한 기술 원조 및 정보원조는 이스라엘의 국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을 세우는 일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Fig. 8에서는 독일의 브란트는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에게서는 또다시 침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인 것이다. 독일은 나치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이웃 나라를 돕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했고 그 결과로 신뢰를 회복했다. 브란트가 꿇어앉은 자리와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세상 사이에는 오직 회개와 용서와 사랑, 그리고 평화가 자라나고 있을 뿐이다. 이것으로부터 진정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 14. 일본의 혐한시위: ‘한국인 나가라!’, ‘한국인 죽여라!’

- 천황은 물론 일본 지배계층과 혐한시위자도 한국계 혈통일 수 있다 -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미국의 힘이 개입된 평화헌법을 유지하면서 한동안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대하여 비교적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일본 고유의 국민 결집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패전 후 70년이 다가오면서 차츰 숨겨졌던 침략근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대도시라고 하는 도쿄 시내를 행진하면서 “한국인 나가라!”, “한국인 죽여라!”는 등 여러 가지 악의에 찬 구호를 외쳐대며 도쿄 거리를 활보하면서 혐한(嫌韓)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전시에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베 총리의 신군국주의 정책과 관련이 없지 않다. 이미 일본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지배계층이 증오하고 있는 한국인은 일본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조선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sup>36)</sup>

아키히토(明仁) 일본 국왕이 1990년 노태우(盧泰愚) 당시 대통령의 방일 때 일본 왕가와 한반도의 혈연관계를 언급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당시 통역을 담당한 김상배(金祥培 · 75)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1990년 5월 24일 궁중만찬회가 끝나기 직전(일왕이) 노 대통령에게 ‘한국과 상당한 인연이 있다고 느낀다’며 아악(雅樂) 감상을 권유했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제 가계를 보면 모계(母系)에 한국계 인물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은 당시 아키히토 일왕이 과거사와

관련해 말한 ‘통석(痛惜)의 염(念)’이란 표현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혈연관계를 언급한(일왕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측은 이 발언을 공개하는 것을 유보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의 정사(正史)인 속(續)일본기는 간무(桓武 · 737~806) 일왕의 어머니 야마토 니이가사(新笠)가 “백제 25대 무령왕(武寧王 · 462~523)의 후손이며 태양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백제의 시조 도모왕(都慕王)의 후손”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797년 완성된 속일본기의 편찬자 간노마사미치(菅野眞道)는 백제 14대 근구수왕(近仇首王)의 후손으로 알려진 백제계 인물이다. 당시 일본의 학술·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백제계는 일본서기·속일본기 등 일본 정사 편찬을 주도했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런 정사에 입각해 한·일 월드컵을 앞둔 2001년 “간무텐노(天皇)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돼 있는 것에 대해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느낀다.”고 말했던 것이다.

박정훈 조선일보 디지털 담당 부국장이 도쿄 특파원 시절 겪었던 경험담을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몰아가는 일본 극우에게>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7)</sup>

도쿄 특파원 시절, 2001년 12월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일본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요지는 이랬다.

“간무(桓武 · 737~806) 천황의 생모(生母)가 백제 무령왕(462~523)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記)에 쓰여 있는 데 대해 한국과의 연(緣)을 느끼고 있다. 궁내청(일본 왕실을 관장하는 관청) 악사(樂師) 중에는 당시 한국에서 이주해온 자손이 대대로 악사를 하고 지금도 가끔(한반도에서 전래된) 아악(雅樂)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

<sup>36)</sup> 조선일보, 2010. 8. 26.

<sup>37)</sup> 박정훈 조선일보 디지털 담당 부국장, “한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몰아가는 일본극우에게”,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 2014. 10. 24.

이것은 일본 왕실의 뿌리가 고대 한반도와 연결돼 있음을 작심하고 고백한 친한(親韓) 발언이었다. 역사학계에선 다 인정된 사실이지만 일왕 스스로 한국과의 혈연 관계를 털어놓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뉴스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1면 톱 거리였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다음 일어난 일이었다. 이른날 배달된 일본 조간신문들에서 이 발언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유일하게 아사히신문만 간략하게 썼을 뿐 다른 일간지나 방송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일왕가(家)에 한국계 피(血)가 섞인 사실을 그렇게도 감추고 싶었을까. 명백한 사실을 자의적으로 공개는 것도 일본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일까. 국가의 목적을 위해선 아예 보도조차 않을 수 있다는 그 괴기한 ‘침묵의 담합’**에 오싹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게 볼 때 일본에서 ‘한국인 나가라!’, ‘한국인 죽여라’고 하는 혐한시위는 일본이 신(神)으로 받들고 있는 천황에 대해 스스로 불경죄를 저지르는 일이며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일이다. 이분들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으로 조선에 출정한 일본 농민들을 보충하기 위해 농사일을 시키려고 끌고 간 한국(조선)인들과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병, 강제징용 및 중군위안부로 끌고 가서 온갖 고통과 노동에 내몰아 전쟁 통에 다 죽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다가 일본 땅에 간신히 살아남은 조선인들, 그리고 농사지은 식량을 모두 일본으로 공출당하고 배고파 바다를 건넌 한국인들이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도 온갖 차별과 일본 특유의 따돌림으로 시달리면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한국인 나가라! 한국인 죽여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 자신도 어쩌면 자신이 한국인 혈통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천황을 비롯해서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대 삼국시대 때 일본에 문화를 가르쳐주기 위해 건너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일제 전범자들이 강제로 끌고 간 한국인의 후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혐한(嫌韓)이라는 뜻이 무엇인

가? 한국을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나라 사이에 ‘반대’ 하는 시위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혐오’(증오)한다는 시위는 일본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며 침 뱉는 혐한시위를 벌이면서 또 다른 전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혈연은 덮어두고라도 문화인답게 인류애를 가지고 한·일이 선린으로 함께 평화스럽게 살아갈 생각을 하면서 후손의 안전을 생각하고 양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대책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고 옳은 일일 것이다.** 먼 훗날 어쩌다 때가 오면 그것이 오히려 혈연을 더럽히지 않은 일이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15. 대한민국(조선)의 세라미스트 장헌공(張獻功)이 사랑한 나라 오키나와(류큐)

### 15.1 오키나와(류큐)의 도조(陶祖) 장헌공(張獻功)의 세라믹 한류 전파 이야기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사쯔마(薩摩)로 붙잡아온 조선의 도공들 중에서 장헌공(張獻功, 속명: 장일륙(張一六)), 안일관, 안삼관 등 3사람이 또다시 오키나와 도동으로 붙잡혀 와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을 오키나와에 전하여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오키나와의 도조(陶祖)로 추앙받는 장헌공의 족보에는 시조가 바로 장헌공이다.** 그의 속명은 장일륙(張一六)이다. 도조가 된 장헌공은 악명 높은 일본 사쯔마(薩摩) 번주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가 정유재란 때 조선 남원에서 도공들을 연행하여 일본으로 데려간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는 장일륙(張一六) 외에 안일관(安一官), 안삼관(安三官)이란 조선 도공들도 있었다. 그때 장일륙은 11세 소년이었다. 그때 사쯔마에는 류큐 상령왕과 그 아들 상풍왕자가 억류되어 살고 있었는데 훗날 류큐로 돌아갈 때 류큐에도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이 세 사람의 조선 도공을 데리고 갔다. 류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안일관과 안삼관은 사쯔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마로 돌아가고 상풍왕세자에게 신임을 얻은 장일륙만 류큐에 남아서 조선식 가마 제조법과 도자기 제조법을 가르쳤다. 류큐왕국에 뼈를 묻기로 작정한 장일륙은 류큐에 귀화하여 이름을 류큐식으로 나카치 레이신(仲地麗伸)이라고 고친다.

상풍왕세자는 장일륙을 장헌공(張獻功)이라 부르며 나하 와쿠다 지역에 거처할 집도 주고 가마터도 만들도록 도와주었다. 장헌공이 류큐에 오기 전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는 아라야치라고 부르는 도자기를 만들어 주로 전통술을 담는 용기로 사용하였으나, 장헌공은 조선식 가마터를 만들어서 1200℃ 이상의 고온에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조야치라고 부른다.

상풍왕세자는 낮은 이국 생활에 잘 정착하라는 생각으로 평소 장헌공이 짝사랑하고 있던 남쪽 마을 오로쿠에 사는 유부녀 마우시(眞宇)를 왕명으로 강제로 이혼시키고 장헌공과 가정을 이루게 하였다. 그렇게 하여 태어난 자녀가 장남 려족(麗族), 차남 려달(麗達)이다. 그러나 마우시는 전 남편을 무척이나 그리워하였다. 마우시가 전 남편을 그리며 부른 노래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sup>38)</sup>

...  
기와 굽는 곳 언덕 위에 올라  
남녘을 바라보면 떠난 고향은 보이는데  
사모하는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

이처럼 마우시는 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애틋했기에 장헌공은 마우시와 이혼하여 전 남편에게 가도록 놓아주고 장남 려족과 함께 고향(류큐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장헌공의 도공 족보는 차남 려달이 이어받는다.

상풍왕은 장헌공으로부터 도자기 제조법을 직접 배워 왕 자신이 빚고 구운 도자기 작품이 류큐왕실의 가보로 보존되어 오다가 비극적인 오키나와 전쟁 중에 없어지고

말았다.

장헌공은 상풍왕 18년(1638년) 52세로 일생을 마친다. 장헌공은 유언으로 상풍왕이 수리에서 나하로 행차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인 모쿠지 길목에 묻어달라고 하며 왕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무덤에 담장을 쌓지 말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상풍왕은 이토록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특별한 장헌공을 귀하게 여겨 수리에서 나하로 갈 때는 항상 장헌공 묘소 앞에 이르면 행렬을 멈추게 하고 경의를 표하며 풍악을 울리게 하여 장헌공의 영혼을 위로했다고 한다.

장헌공은 고국인 조선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대단하여 후손들에게도 이름을 지을 때 고국 조선을 의미하는 려(麗)자를 들림자로 쓰도록 함으로써 그의 가문이 조선인의 후예임을 잊지 않도록 하였다. 그의 족보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가 려(麗)자를 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헌공의 두 아들 려족과 려달은 아버지를 닮아 도자기 기술이 뛰어나 그 명성이 대단했다. 1676년 상정왕 8년에는 장헌공 가문에 사키마라는 성씨를 하사하여 사키마 성을 가지게 되었다. 장헌공 가문의 후손들은 한결같이 려(麗)자를 품고 있다. 2대 려족, 려달, 3대 려강, 4대 려식, 5대 려보, 6대 려허, 려평, 려민...14대 려신(레이신)에 이르게 된다. 사키마 레이신은 자손으로 3남 1녀를 두었고 두 아들은 회사원이고 딸은 교사이다. 사키마 레이신은 91세로 2013년 3월 17일 영면하였다.

장헌공의 후손은 8대까지 도자기 제조로 명성을 떨치며 류큐왕국의 도자기 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비록 9대부터는 도자기 제조가 아닌 다른 일을 하지만 장헌공이 류큐에 쌓았던 공적이 너무나 대단하였기에 지금도 오키나와 3대 명절인 청명절이 되면 후손들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장헌공 묘소를 찾아와서 한국 쪽을 향해 큰절을 하며 “장헌공 당신의 자손

<sup>38)</sup> '도조가 된 장헌공' 2013. 5. 28. (출처: <http://cafe.naver.com/okabc/204>)(2015.2.12. 접속).

들입니다. 오늘이 청명제라서 모두 모였습니다. 우선 장헌공의 조상이 계신 한국(조선)의 조상들께 제물을 바치니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제물을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차례를 올린다.

## 15.2 대한민국-오키나와(류큐) 간 세라미스트와 세라믹 기술 교류

### -오키나와 세라믹 한류의 위대한 선구자 장헌공 후손들에 대한 연구와 교류-

강원일보는 “강원 도자 우수성 세계에 알리고파”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 원주 출신 도예가 호봉(瑚峰) 장송모씨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39)</sup>

한국무형문화재 총연합회장을 역임한 원주 출신 도예가 호봉(瑚峰) 장송모(84·강원도 무형문화재 제6호)씨는 1995년 횡성군 공근면 창봉리에 장송모 도자연구원을 세우고 후학 양성과 함께 강원 도자문화의 재조명을 위해 힘써 온 인물이다.

그는 조선왕조실록 사료를 바탕으로 강원도 도내 곳곳을 다니며 조사보고서를 작성, 이를 근거로 강원도 도내에서 100여개의 가마터가 발달했고 일제 말기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조선도공 장헌공의 묘와 비석을 찾아 후손과 문화교류의 길도 열었다.

장송모씨의 도예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볼 때, **오키나와 도공 장헌공의 조선 출신지를 알 수 없다고 하니, 장송모씨가 장헌공과 같은 장씨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쩌면 그의 후손의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조사·연구하여 장송모씨와 같은 인재들을 많이 발굴하여 한국-오키나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류큐민족이 일본에 멸망당하고 류큐 언어를 쓰지도 못하면서 일본어로 말하는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키

나와인들의 삶과 운명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와 서로가 닮은 데가 있다. 분명히 오키나와의 세라미스트들 중에는 한국인 세라미스트들의 후예가 많을 것이다. 일본은 오키나와를 무력으로 침략하여 강제로 합병했지만 오키나와인들은 일본에 강제로 동화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세라믹 기술을 전수받고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문화에 친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 세라미스트들은 오키나와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 때 장헌공(본명 장일륙) 등 조선의 세라미스트(도공)들을 사쓰마로 강제로 연행해갔는데, 사쓰마번에서는 조선에서 붙잡혀온 세라미스트들에 의해 세라믹 기술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된 것이다. 또 **장헌공은 더 멀리 오키나와까지 가서 조선의 세라믹 한류를 전파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세라미스트가 된 것이다. 이들은 국경의 한계를 극복한 위대한 평화주의자인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와 조선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제조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웃나라 일본에 전하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세라미스트(도공)들이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또 이들 중에는 더 멀리 오키나와(류큐왕국)로 끌려간 세라미스트가 장헌공이었다. 바로 이러한 세라미스트들이 더 먼 나라로 가서 도자기 제조 기술을 전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외국으로 가서 도자기 제조 기술을 가르친 것은 물론, 그곳에 위대한 대한민국의 세라믹 문화인 평화주의를 전파하게 될 후손들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장헌공 역시 오키나와에 그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서 결국 한국의 후손들이 세계에 널리 살게 되었으며, 이들이 오키나와인들에게 위대한 평화주의 대한민국의 세라믹 한류를 계

<sup>39)</sup> 오석기 기자, [문화인터뷰] “강원 도자 우수성 세계에 알리고파”, 강원일보, 2013.5.2.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속 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오키나와에는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 장헌공의 후손이 약 900명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이 있을 때부터 약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기간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숫자이다. 따라서 오키나와가 태평양전쟁에 휩쓸린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어야 하며, 또한 오키나와와 관련이 있는 국내 세라미스트들을 발굴하여 오키나와의 장헌공 후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키나와와 대한민국과의 친밀한 교류의 결과의 하나로 앞(4항)에서 오키나와인들이 대한민국에 우호적이 되어 태평양전쟁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한국 정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전쟁 사실을 증언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스스로 협력하고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오키나와에는 위대한 장헌공의 세라믹 한류인 평화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은 일본의 침략전쟁(호모사피엔스 전략)을 막아서 ‘인류의 멸종’을 막으려는 하늘의 뜻(계획)이며, 결국 장헌공의 후손과 오키나와인들이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평화주의자들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함께 나아가는 세라믹 한류의 선구자들이 될 것이다. 태평양전쟁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태평양을 떠도는 대한민국의 강제 징병자들, 강제징용자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들의 명령들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한류를 타고 ‘약속의 땅’ (통일 대한민국)으로 들어갈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 16. 맺는말

- 오키나와 전투에서 일본의 ‘호모사피엔스 전법 (인류멸종 전략)’이 통했더라면? -

- 위대한 대한민국 세라미스트들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일본의 미래 -

### 16.1 일본의 ‘호모사피엔스 전법’과 일본이 추구하는 미래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하라리(Yuval Harari) 교수는 ‘픽션을 만들어내는’ 호모 사피엔스의 능력 덕분에 네안데르탈인들보다 더 약하고 더 작은 뇌를 가진 호모사피엔스들은 전설과 신화로 만들어진 정체성으로 뿔뿔 뭉친 100명, 1000명의 힘을 모아 그들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단단한 뼈를 가진 네안데르탈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이론을 주장했다.<sup>40)</sup>

일본은 이러한 호모사피엔스 전법을 구사하여 대한민국을 침략하여 식민지화 하고, 거대한 중국과는 ‘청(중)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시아와의 ‘러일전쟁’에서 이겼으며, 이웃나라와 세계에 대하여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sup>41)</sup> 그러나 일본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인류 모두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구사한 호모사피엔스 전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인간인 천황을 신(神)으로 받들고 있지만, 세상에는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를 신(하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있다는 것과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일본과 똑같은 사람들이며, 다만 역사인식과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일본 민족 우월주의’의 국가신도·천황주의의 잘못

<sup>40)</sup> 이홍림, “위대한 대한민국(조선) 세라미스트들의 기술력과 한국(조선)인들의 주검 위에서 성장한 일본은 침략주의에서 벗어나 평화주의의 길을 택함으로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서 보답해야 한다”, 세라미스트, 17[4] 68-103 (2014).

<sup>41)</sup> Ibid.

된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16.2 호모사피엔스 전법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는 통했지만, 태평양전쟁에서는 왜 통하지 않았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년 안에 조선민족을 멸종시킬 계획을 세웠지만 7년 만에 죽고 말았다.**

**-과거 역사를 지금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로마 제국은 왜 멸망했는가?-**

호모사피엔스 전법으로 자기보다 더 큰 중국과 러시아를 이긴 일본은 자신감을 얻고,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와 그의 병사들은 천황과 도조 히데키 총리의 명을 받고 사기가 충천한 나머지 휴일(일요일) 새벽을 기해 미국 해군기지인 하와이를 무자비하게 기습 공격함으로써 일격에 큰 피해를 입혀서 항복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천황은 기습공격이 끝나고 난 후에 '선전포고 조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우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일본이 자신하고 있는 대화혼(집단주의)과 호모사피엔스 전법을 능가하는 정신력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일본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은 영성이 뛰어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작은 조각배, 메이플라워호에 의지하여 험한 바다를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이룩한 나라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호모사피엔스 전법은 사람의 단결력이 그 핵심이지만, 미국의 핵심 전법은 일본이 믿는 인간신(천황)보다 한 단계 위의 창조주인 신(하늘, 하나님)을 믿는, 더 높은 영성을 갖추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링컨(1809~1865)과 같은 미국 대통령은 그의 백악관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 정도로 영성이 높은 사람이었으며, 많은 미국의 대통령과 관리들은 기도를 통해 영성훈련을 생활화하고 있는 독실한 신앙인들이다.

일본의 태평양전쟁의 영웅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옥쇄(자결, 가미카제) 전법을 쓰며 결사적으로 일본군을 이끌

었지만, 그의 모든 작전명령의 암호는 미국의 뛰어난 영성 - 영성은 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탁월성의 바탕이기 - 때문에 모두 해독되어버리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하고, 그가 탑승한 전투기 비행 항로의 암호마저 해독되어 격추되어 죽고 만다. 호모사피엔스 전법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이다.

만년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한국의 지배권을 놓고 싸운 청일전쟁(1894-1895)의 승리에 즈음하여 "바야흐로 이웃나라 중국·조선도 우리 문명에 포섭되려 한다. 필생의 유쾌...망외(望外)의 행복, 국가의 위광을 세계에 빛나게 하여 대일본제국의 지위를 더 높인다. 황홀해져 마치 꿈과 같다."고 한 그의 '호모사피엔스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로마제국은 황제의 신격화 때문에 멸망: 일본 천황은 신격(神格)>**

로마제국은 처음에는 일본처럼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기독교를 박해했다.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정교분리(政教分離)를 하지 않은 로마제국은 또다시 황제가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은 무너져버린다. 결국 인간인 황제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로마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만다. 16~17세기에 이르러 기독교는 독일의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를 개혁을 하는 '종교개혁'을 겪은 후에 새로운 유럽으로 태어나게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분명하게 정교분리를 하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신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정교분리를 함으로써 높은 영성을 갖추고 있다. 아베의 일본이 대화혼(호모사피엔스) 전법만 믿고 국가신도와 천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결력과 군사력만 앞세워 아베식의 신제국주의·신군국주의를 지향하는 '강한 일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전쟁 가능한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위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먼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를 하고 진정성을 보여 신뢰를 쌓고 천황제를 개혁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으로 태어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진실과 진정성을 원하는 높은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것을 일본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호모사피엔스 작전 '암호' 를 해독하라!>

만일 일본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에 이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까지 일본은 거대한 중국과 청(중) 일전쟁 및 러시아와 러일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고귀한 인류의 목숨을 참혹하게 학살하고 아시아의 승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듯하고 있었다. 그 전쟁은 모두 대한민국을 전쟁터로 삼고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대한민국을 짓밟고 점령한 것이다. 그때부터 일본은 대한민국과 중국을 향해 대동아공영권, 즉 일본을 중심으로 동양의 힘을 결집하여 미국에 승리함으로써 일본 지배계급만 아는 '호모사피엔스 작전 암호' 인 '타 인종을 멸종시키고 세계를 점령하고자 음모' 를 꾸미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중국을 '탈아론' 을 내세우며 '악우' 라고 비하하고 침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후에, 또다시 침략근성을 드러내어, 이번에는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우며 대한민국과 중국을 끌어들이 미국을 침략하기 위해, '호모사피엔스 전략' 을 구사하여 타 민족을 멸종시키고 일본만이 지구의 유일한 호모사피엔스 종족으로 남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야심만만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조선을 침략하여 조선인을 멸종시키고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고자 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호모사피엔스 전략의 연속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경제 성장을 위한 최고의 첨단 기술인 도자기(세라믹스) 제조 기술을 한국(조선)에서 통째로 전수받아 일본의 세라믹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에서 도공(세라미스트)들을 모조리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조선의 문화를 완전히 멸절시키고자 조선의 문화재를 송두리째

약탈하고 불태우기 위해 조선 침략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잔인하게도 이때 '조선 땅에 살아 있는 것은 모두 죽여 버리고, 조선 땅을 일본에 예속시킬 것' 을 일본군에게 명령하였다. 그런 다음에 조선 출병으로 농민들을 잃고 불만을 가진 다이묘들에게 조선 땅을 나누어주고 일본인들을 조선에 이주시킬 것을 계획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의 완벽한 '호모사피엔스적인 발상' 이었다. 그는 10년이면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지 7년 만에 죽고 말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획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지구상에서 멸종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년만 더 살아 있었다면 조선인은 조선에서 사라지고 일본인들만 조선에서 활보하고 다닐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때 대한민국(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나타나서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하늘은 이렇게 잔인한 일본의 침략전쟁에 드디어 개입한 것이다. 천황보다 높은 존재인 하늘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데려가고, 위대한 조선의 리더 이순신 장군을 보내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것이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 일으킨 태평양전쟁 역시 하늘이 관여하게 될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일본의 호모사피엔스 전략은 이른바 악마(사탄, 마귀)만이 할 수 있는 사악한 음모였던 것이다.

16.3 오키나와 전투는 국제호지(國體護持, 천황제 유지)를 위한 전쟁

-일본이 1945년 7월 이전에 오키나와전에서 항복했다면 한반도의 분단도 6.25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 조서와 총리 도조 히데키의 지시를 받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1884~1943) 연합함대 사령장관은 미국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가미카제까지 동원하여 미국에 결사 항전하였다.

태평양전쟁 중에 일본 영토 내에서 벌어진 유일한 대규모 지상전인 오키나와 전투는 처음부터 일본 지배세력이 본토방어와 체제유지를 위한 시간별기용으로 기획된 전쟁이었고, 오키나와 주민들과 강제 징용·징병된 조선인들과 위안부들은 그 기획에 소모품으로 동원됐던 것이다.

“오키나와전은 ‘본토 결전’의 시간을 벌고, 잘 되면 ‘국체호지(國體護持, 천황제 유지)를 조건으로 연합군과 평화(항복)교섭’을 벌이기 위한 ‘버리는 돌(捨石) 작전’이었기 때문이다.”

천황 히로히토와 일본 대본영이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이 시작된 1945년 4월 이전 또는 최후결전이 벌어진 6월 이전에 항복을 했다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키나와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전후 일본처리문제가 논의된 1945년 7월 포츠담선언 때라도 전쟁을 포기했다면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의 비극은 없었을 것이며, 소련군의 개입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분단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6.25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오키나와 작전을 벌이며 연합군으로부터 천황제 유지[국체호지(國體護持)] 보장을 받아내려고 시간별기를 한 대가는 너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늘은 가만있지 않았다. 원자폭탄 투하로 또다시 일본의 ‘호모사피엔스’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고만 것이다.

**<극단주의자들이 테러에 사용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잔인한 방법은 가미카제(자살특공대)와 ‘옥쇄(강제자결)’ 등 일본이 침략전쟁에서 먼저 사용했다! 왜?>**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사용한 가미카제와 옥쇄(강제자결) 전략·전술은 인류사상 가장 잔인하고 극단적이며 반인륜적인 방법으로서 인권을 극단적으로 무시한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은 오늘날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모방되고 있다. 일본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전쟁에 사용한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

이 가지 않는다. 아무래도 인류를 멸종시키고자 한 ‘호모사피엔스 전략’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 16.4 한·미·일 동맹을 이용하여 일본이 숨기고 있는 음모(‘암호’)는 무엇인가?

- “인간으로서의 일본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이어령 문화부장관) -

일본은 지금 한·미·일 동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 동안 이룩한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동원하여 최신무기체계를 갖추고, 미국을 등에 업고 ‘집단지위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 평화헌법을 고치려 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힘이 커지자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 이면에 아베의 일본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적이 있으므로 일본의 지배계층은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북방 4개 섬에 대해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중국과는 센카쿠열도(일본명)/다오위다오(중국명)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과는 본래부터 한국 영토인 독도를 갑자기 1905년에 러·일전쟁 때 레이더 시설을 독도에 설치하고 타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일본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을 만들어 놓고 일본의 국력을 길러, 대화혼으로 관민의 힘을 결집하여 또 하나의 일제 침략(‘호모사피엔스’)전쟁의 음모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미국을 도우는 척하고 있지만 기회를 보아 주변국들의 역학관계가 일본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과거에 그랬듯이 한국과 미국을 배신하고 또다시 한국과 미국을 기습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그러한 음모(암호)는 일본의 작전계획에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다. 일본은 그 음모(암호)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호모사피엔스’의 꿈, 즉 타 민족을 멸종시키고 일본민족, 즉 황국신민만이 지구의 유일한 종족으로 살아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남겠다고 음모(암호)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황국사관인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왜 아베의 일본은 과거의 침략전쟁 사실과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도 부정하면서,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분쟁의 불씨로 삼으면서 이웃과는 조금도 평화스럽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

2015년 2월 7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아베 총리가 과거 인터뷰에서 “현재의 일본헌법은 연합군총사령부(GHQ)의 문외한들이 8일 만에 만들어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즉 아베는 연합군(미국) 측의 개헌 제안에 대해 ‘문외한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는 내심으로 매우 다급해하는 대목이다.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기에는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너무 거대해지고 있으며, 미국은 너무 버겁기 때문이다. 아베의 일본은 매우 다급하고 초조하며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내려오는 유전병일 것이다. 일본(지배계층, 대를 이어 일본을 지배해오고 있는 계층)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벗어나 너무 엉뚱한 일본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일본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말한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sup>42)</sup> 그의 예리한 통찰로 미루어 볼 때 그의 판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자칫 방심하고 있다가는 일본 이외의 타 민족이 멸종당할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경고가 엄중하기 때문이다.

## 16.5 일본의 ‘암호’ 를 해독하라!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실수와 도조 히데키의 운명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 1884~1943) 일본 연합대 사령장관은 태평양 전쟁에서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했다. 하나는 그가 말했듯이 진주만 공습의 성공을 보고받은 후 “어쩌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운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독백하면서도 그것을 이미 실행해버린 것이다. 야마모토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받들지 않고 현실에 충실한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국민 전체가 신(神)으로 받들고 있는 천황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일본의 ‘호모사피엔스’ 전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한 인물이었다. 그의 결정적인 실수는 그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의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천황과 도조 히데키에게 직언하여 전쟁을 반대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대화혼의 힘에 눌렸을 것이다.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전쟁을 막지 못한 것이 그의 결정적인 실수였다. 만일 그가 전쟁을 막아내고, 또 천황제를 개혁하였다면 일본은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있을 것이다. 만일 그가 파푸아 뉴기니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에 격추되어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일제 침략정권의 중심에 있었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884~1948, 일본의 군국주의자. 미국·영국에 대한 전쟁을 주장하고 1941년 10월 도조(東條) 내각을 조직, 현역 군인인 상태로 총리가 되어 육군장관과 총리를 겸하였으며 육군대장으로 승진, 12월 진주만의 미국 해군 기지에 기습 공격을 명령하고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 개전 후 독재를 강화했고, 한국에서는 징병제와 학도병 지원제를 실시했다. 1944년 참모총장도 겸임, 도조(東條) 독재체제를 수립하였다. 1944년 7월 전세가 악화되자 총사직했다. 패전 후 극동 국제 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1948년 12월 23일 7명의 A급 전범들과 함께 처형당함)가

<sup>42)</sup>히용조,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 소녀타’, (서울: 두란노서원, 2012), 10-11.

그를 죽였을 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도조는 야마모토가 천황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도조 히데키와 역할이 반대였더라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피했을 것이며, 일본의 천황제는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일본은 지금 훨씬 나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천황제가 앞으로 일본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요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도조는 야마모토가 죽고 전세가 더 악화되자 천황의 신적 권위에 실망한 나머지 총리직 사표를 내고 물러나 자포자기한 비겁한 인물이 되고 만다. 그는 악마(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야마모토의 두 번째 실수는 일본이 인간인 천황을 신(神)으로 받들고 있는 나라인 반면에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 건너 멀리서 찾아온 청교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인간의 영성(靈性)은 창조주의 영성에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성(靈性, Spirit)에서 절대자(신, 하늘)에 비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신인 천황 중심의 호모사피엔스적 단결에만 의존했던 일본은 중요한 전투인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작전 암호가 미국에 의해 해독되어 미드웨이 전투에서 패전하면서부터 내리막길을 치닫게 되고, 마침내 야마모토는 그의 비행행로까지 해독되어 1943년 4월 18일 뉴기니 상공에서 미군의 P-38 라이트닝 전투기에 피격당해 전사하고, 이어서 일본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이웃나라와 전 세계에 대해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남기고, 원자폭탄 투하와 함께 일본의 호모사피엔스 전략은 막을 내리게 된다. 천황제 중심의 호모사피엔스 전략의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이다.

**<일본의 지배계층과 선량한 일반 국민(피지배계층)>**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인류는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전쟁의 암호를 해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다. 천황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가며 일본을 통치하고 있는 일본의 지배계층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나 깨나’ 항상 침략과 전쟁만 생각하면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지배계층(귀족)끼리 암호(음모)를 공유하면서, 이웃나라와 세계를 기습·공격해온 것이다. 아베 총리 역시 천황을 받든 도요토미 히데요시처럼 천황제를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천황이라는 신(神)으로부터 받고 있는 영성은, 하늘의 영성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성을 단련함으로써, 침략전쟁만 생각하면서 쉴 새 없이 음모를 꾸며내고 있는 일본 지배계층의 암호를 계속해서 해독해내면서 항상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 국왕과 지배계층을 무너뜨렸으나, 일본은 그와 정반대다. 오래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메이지유신 때, 일본의 지배계층은 사무라이 칼로써 선량한 국민을 굴종시켜 대화혼이라는 군대조직 속에 가두어놓고 대를 이어가며 일반 국민을 다스리면서 천황제 유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전쟁에 소모품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기독교와 영성>**

하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 민족을 멸종시키려는 잔인한 의도를 막아내었고, 일제 전범자들을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소중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영성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일본에 먼저 들어갔으나 신도(神道)와 천황제에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나 한국에는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으나, 하늘을 받들고 있던 본래의 민족신앙과 조화를 이루며 기독교의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양국의 영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 16.6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로 가는 길목 “대마도”

대마도(對馬島, 쓰시마)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로 가는 길목에 있다. 벌써 오래 전부터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것은 조선의 세종대왕이 이종무를 시켜 대마도를 정벌하고 점령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며 역사왜곡이 아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2일 아베 정권은 대마도에 배치된 자위대를 현재 700명 수준에서 크게 늘려서 아예 국경을 지키는 전담부대로 삼기 위한 군사기지화 법 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일 교류로 갈등의 완충지가 되어야 할 대마도가 이렇다 한·일 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 된 것이다.

최근 외국 출신의 어느 교수도 2014년의 공식적인 TV 대담에서 ‘대마도는 한국영토’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증거로서 한국의 문화재 전문가와 언론 등에 따르면 대마도에는 신라·고려시대 등 과거 우리나라의 국보급 불상들과 함께 한국 영토로서의 증거가 실제로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면 일본이 대마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어책일 수도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대마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편이 훨씬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우리나라를 지키고 더 희망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16.7 일본은 천황제 개혁으로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아베의 일본은 잘못 가고 있다. 일본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침략전쟁 사실을 인정·사과하고, 천황제를 개혁해야 한다!**

일본은 1946년 헌법을 개정했으나 여전히 천황제를 택하고 있다. 일본이 받들고 있는 천황이라는 존재는 신

격(神格)이다. 일본 국민은 천황의 신민(臣民)이므로 신(神)인 천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천황은 신(神)이므로 사람이 아무나 함부로 악수를 청할 수도 없는 것이다.

2013년 11월 초, 38세의 일본 무소속 조선 국회의원 야마모토 타로가 하루아침에 공공의 적이 되었다. 여당과 우익단체는 물론 야당으로부터도 연일 의원직 사퇴 압박을 받았다.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사정을 알고 보면 어이가 없다. 일왕 주최 가든파티에서 일왕과 악수하면서 편지를 건넨 것이 죄라면 죄다. 편지의 내용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어린이와 원전 근로자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감히 천황 폐하에게 불경스럽게 편지를 건넸다’며 발끈했다. 사실 그보다 더 큰 원인은 조선위원이 감히 신(神)인 천황에게 악수를 청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왕에 대한 불경죄로 지탄받는 야마모토 타로는 도쿄도 소속 참의원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기 배우에서 원전 반대 운동가로 변신해 정치에 입문했다. 우리 시각에서 보자면 야마모토의 행동은 불경죄와는 거리가 멀다. ‘원전 반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대통령에게 원전의 안전성이나,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진정 바람직한 건의이며 입법의 근거가 될 만한 중요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정치권은 초년병의 선의를 대역죄인 다루듯 하는 이 사태에서 일왕(천황)에 대한 일본의 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은 전후 헌법에도 불구하고 일왕(천황)에 대해 이처럼 여전히 일반 사람들과는 손을 잡고 악수도 할 수 없을 만큼 신격(神格)으로 받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와 공존해 나가는 데도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로부터 벗어나 전후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일본헌법의 천황이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침략전쟁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 천황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보듯이 일본이 새로 거듭나서 이웃나라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천황제'를 개혁하는 일일 것이다.

<일본 헌법과 천황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근대 입헌주의에 입각해 제정된 일본제국의 헌법으로서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 발효된 것이었다. 이 헌법은 공포 당시 일본을 통치하던 메이지천황(明治天皇, 1852~1912)[일본 제122대 천황(재위: 1867~1912)]이다. 1867년 16살 때 즉위하여 왕정복고를 달성하고,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하는 이른바 메이지 유신(維新)에 성공하여 황권을 강화시켜 일본제국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한 이후 1910년 대한제국을 침략하여 한일합방을 강행함의 연호를 따서 일명 '메이지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제국헌법', 또는 지금의 일본 헌법과 구별하기 위해 '구헌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또는 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로부터 기존의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받고 이른바 '마쓰모토(松本)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제국헌법과 내용상 차이가 없어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1946년 2월에 이른바 '맥아더(MacArthur)안'을 제시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기초로 다시 작성하여 1946년 11월 3일에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을 공포하였다. 이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일본 헌법 제1조에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이 소재하는 일본 국민의 총의(總意)에 기초한다."라고 명기되

어 있다. 일본제국 당시의 구헌법에는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인 천황이 통치권을 총괄(總攬)한다."라고 하여 천황의 통치를 강조한 것에 비해 새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고 명기한 것이다.

일본 헌법 제1조에는 여전히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국민들에게는 구헌법에서 '신성불가침인 천황이 통치권을 총괄한다.'고 규정한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혁명을 겪지 않은 일본 국민들은 신(神)으로 받들고 있는 천황이 존재하는 그것 자체로 구헌법의 위압감을 그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전에 천황이 상징적 존재였을 때도 일본은 사무라이 칼에 억압당했고, 메이지유신 이후에 천황은 신적 카리스마로 국민을 억압했기 때문에 국민은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사실 신적인 존재인 천황과 각료들이 함께 국민을 억압하지 않았던가? 묻자 그대로 정말로 '상징'으로만 생각하게 할 바에는 아예 헌법에서 천황의 존재를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래 일본 천황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다른 A급 전범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게 하고 천황제를 폐지시켰어야 옳았다. 그래야 일본이 진정으로 침략전쟁을 사과했을 것이며, 일본 국민이 민주국가의 자유로운 국민이 되어 자유의사를 밝히고 양심의 자유를 느끼게 될 것이다. 아직도 일본 국민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아베정권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면 두려운 눈으로 천황과 정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천황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의식하면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말의 참된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고 일본국민은 지금도 여전히 천황이라는 무섭고 냉정한 존재인 신(神)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일본 지배계층은 이것을 잘 알고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또 이것을 통치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아베와 일본의 지배계층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침략전쟁 부정과 역사지우기, 역사왜곡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방향을 잡은 것인데, 이것은 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전제를 하고 있으나, 이웃나라들에게 과거 침략전쟁 사실들을 부정하고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믿으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솔직하게 모든 침략전쟁사실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함으로써 이해를 구하는 일이 먼저일 것이다. 아베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하기보다는 먼저 천황이라는 용어를 헌법에서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천황을 그대로 둔 채 아베의 방식대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아베의 일본은 신제국주의와 신군국주의로 나아가 또다시 침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그 와중에 이웃나라와 전 세계 인류는 또다시 과거처럼 극심한 전쟁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아베정권은 잘못 가고 있는데, 오늘날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아베와 천황제 때문인 것이다.

<관용 없이 엄격하고 냉정하며 사랑이 없는 천황제는 일본의 공업화에 기여했으나 일본을 침략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세계평화에는 장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한국 기독교의 '러브 소나타' 운동이 일본에 사랑을 전하다 -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神道)에는 회개와 용서

와 사랑이 없다.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냉정하고 무서운 통치자의 칼날이 번뜩일 뿐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겨울 소나타'가 인기몰이를 한 것이다. 사랑이 없는 냉정하고 무서운 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신처럼 오류가 없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인이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주인이 아끼는 도자기를 떨어뜨려 깨뜨리면 주인은 그 즉석에서 사무라이 칼을 뽑아 단칼에 목을 내리쳐서 죽여 버린다. 용서와 사랑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공업을 일으키면서 수출 공산품에는 하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여 공업 강국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일본 사회에는 용서와 사랑은 물론 사과와 회개도 없다. 일본은 대외정책에서도 그렇다. 오직 침략과 약탈과 학살이 있을 뿐 잘못을 사과하고 회개하고 사랑을 베풀며 함께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없다. 일본국민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신국사상과 천황제의 칼날같이 무서운 수직의 조직사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한국기독교의 하용조 목사가 시작한 '러브 소나타' 운동<sup>43)</sup>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배용준의 '겨울 소나타'가 한류를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한류가 일본을 강타하고 하용조 목사가 시작한 '일본사랑 러브소나타'가 일본 사회를 울리게 된 것이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천황제에는 없는 이웃사랑인 것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 1861~1930)는, 천황제에 배치된다고 존황파(尊皇派)들에 의해 배척당하여,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해, 일본 국민들은 다른 종교(불교와 기독교 등)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sup>44)</sup> 이처럼 일본은 신국사상과 천황제로 인해서 이웃을 침략하여 고통을 주고 일본을 패망의 길로 가게 함으

<sup>43)</sup> 하용조,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 소나타', (서울: 두란노서원, 2012).

<sup>44)</sup> 이홍림, "위대한 대한민국(조선) 세라미스트들의 기술력과 한국(조선)인들의 주검 위에서 성장한 일본은 침략주의에서 벗어나 평화주의의 길을 택함으로 새로운 일본으로 거듭나서 보답해야 한다", 세라미스트, 17[4] 68-103 (2014).

로써, 일본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전체주의와 침략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웃 나라들에게 침략전쟁 사실을 사과하고 화해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침략주의는 일본의 종교' 와도 같았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신국사상에서 벗어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인 것이다.

### 16.8 한·일 세라미스트들의 꿈과 한·일 양국의 밝고 위대한 미래

#### <대한민국-오키나와 간 세라미스트들의 인적 교류 및 기술교류 등 세라믹 한류(평화주의) 전파의 필요>

임진왜란 때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로 끌려간 조선(대한민국)의 세라미스트들인 이삼평, 심당길[그의 12대 이후는 심수관(沈壽官)이라 함, 현재 14대], 장헌공 등은 성경(창세기 37-50장)의 요셉처럼 세라믹 기술과 한국문화(평화주의) 전파의 원조가 되었고 일본의 근대화와 일본이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고국을 그리며 이국땅에서 평화의 싹인 세라믹 한류를 일구어 놓은 공적과 정신을 드높여 주어야 한다. 그들은 이국땅에서 때로는 노예처럼 때로는 평화의 선구자들처럼 살았고, 또 그동안 모든 한국인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굴욕적인 일제 식민지 시대(강점기)를 겪으면서 온갖 고통과 죽음까지 이겨낸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서, 한·일(오키나와) 양국에 살고 있는 모든 세라미스트들-일본(오키나와)의 세라미스트들은 실제로 대부분이 한국 혈통인 형제들임-이 함께 지혜를 모아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 한·일 양국의 세라미스트들이 같은 한 마음으로 한·일 양국 간의 전쟁방지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 '세라믹 한류'(평화주의)를 전

파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 기독교가 벌이고 있는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sup>45)</sup>를 지원하면서 일본의 양심들에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리 괴로워도 그 괴로움을 기억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아놀드 토인비의 엄중한 경고를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한·일 양국의 공동 비전>

대한민국과 일본은 '한·일간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연구기구'를 함께 설립하여, 임진왜란으로부터 일제 식민지 시대와 태평양 전쟁 때까지 대한민국 침략의 역사를 조사·연구하여, 전범사실을 낱알이 밝혀내고, 이것을 한·일 양국의 후세들과 세계 인류의 후세들을 위한 교재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앞으로는 불행한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한·일 양국과 세계 인류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영원한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공동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지배계층)은 이것을 빨리 깨닫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일제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을 기억해야>

일제강점기 '떠받들어지던 관료' 향수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식민지 억압체제에서의 저항적 민족주의가 이제 걸핏하면 '분노'로 표출되는 것도 큰일이다.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왜 우리끼리 목숨 걸고 싸우는가? 일제 마지막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한 말을

<sup>45)</sup> 하용조,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 소나타', (서울: 두란노서원, 2012).

한국(조선)인들이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오키나와, 그곳에서 1만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위해 희생되다!

잊지 말아야 한다. '울지 마라 일본인이여, 우리는 조선과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다. 대동아공영의 큰 꿈을 향해 나가다가 미국과의 일전에 져서 이 땅에서 잠시 물러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조선인들에게 식민지교육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100년 동안은 해매게 될 것이다. 자중지란에 빠져 일어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정말 소름끼치는 말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sup>46)</sup>

#### <아직 남아 있는 중요한 문제들>

오래 전, 일본이 임진왜란 7년 동안 한국 땅에서 저지른 양민 학살은 물론, 문화재를 불태우고 약탈해간 사실을 비롯한 모든 침략전쟁 사실들, 그리고 그렇게 장기간 동안 한국 땅에 머물면서 왜병들을 위한 위안부(성노예) 가능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제가 범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및 그 연계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연구함으로써,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를 기획한 그 근본이 되는 뿌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을 마치 오락을 즐기듯 칼을 휘두르며 이웃나라 양민들을 학살·유린한 다음에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미화하려고 역사교과서를 왜곡·수정하고 있는 일본 총리 아베의 일본 지배계층 내부에서 함께 공유하며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음모·암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와 후세대 및 세계 인류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와 일본,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및 세계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sup>46)</sup> 강기준 다물평생교육원장, 동아일보 2015.2.7.

#### <글의 문화와 칼의 야만>

흔히 대한민국에는 '글의 문화'가 있고, 일본에는 '칼의 문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칼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이므로 '칼의 문화'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 칼은 야만(野蠻)을 상징한다. 본래 한국 민족은 글을 숭상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문화민족'이고, 일본 민족은 칼을 휘두르며 이웃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해온 '야만민족'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글과 문화를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문화민족'이 '야만민족'에게 당한 예는 역사에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야만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문화민족은 문화를 꽃피우며 영원히 존속해오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야만민족의 침략근성을 항상 경계하고 대책을 세워서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내부 단결을 잘 갖추고 있어야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침략주의 근성을 가진 일본을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치열한 당쟁을 벌이면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그 치욕을 후세대들에게 역사로 가르치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우리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 쉽게 열정이 식어버려 잘 잊어버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주의를 잘 알고 있는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전에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잊어버리는 시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치욕적인 침략전쟁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는 일에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좋은 이웃>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먼 옛날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글을 가르쳐 문화를 일깨워주고 세라믹 기술을 전해준 것처럼, 비록 현재까지는 지극히 국수주의적이며 침략주의적인 위험천만한 일본을 철저히 경계하면서 깨어

있는 동시에, 우리가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좋은 이웃 (good neighbor)’의 역할을 하는 것 또한 ‘하늘의 뜻’인 ‘세계 평화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함께 열어가야 할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한·일 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달성’을 비전으로 삼고, 보다 밝은 한·일 양국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기꺼이, 또한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한·일 양국의 세라미스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선도하고 나서야 앞으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다.

●● 이홍림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학사, 석사)
-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역임
- 한국세라믹학회 회장 역임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 역임
- 코리아세라믹신성장포럼 공동대표 역임
-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